

# 시립박물관 건립방향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 자료집

2006.11.23

일시 : 2006년 11월 23일(목) 오후 3시

장소 : 성남시청 대회의실

주최 : 성남시

주관 : 성남문화재단

## 인 사 말

“향기 있는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성남시가 주요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립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심포지엄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시어 우리시 박물관건립과 운영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발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실 발표자와 패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또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정종삼, 정용한 시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성남시는 시 승격 33년을 넘어서서 인구 100만의 장년의 대도시로 다양한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도 시민들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성남 아트센터를 비롯한 많은 문화시설을 건립 운영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시의 위상에 걸 맞는 품격 있는 박물관을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20세기가 산업사회라면 21세기는 미디어의 융합과 함께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생산되는 지식·문화사회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건립될 시립박물관은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시민들의 문화지평을 넓히고 시의 정체성 확립에 일조하며 또한 우리시의 문화수준을 대변하는 상징물이 될 것입니다.

성남시립박물관은 우리시의 이미지를 높이고 성남시가 추구하는 가치와 이상을 보여줄 수 있는 박물관이어야 하며 특히, 어떠한 테마로 박물관을 운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와 토론에 참여하신 분들은 모두 박물관과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이시며 또한 청중으로 참석하신 시민들께서도 박물관 건립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이 이러한 시민들의 바람을 반영하여 박물관 건립을 위한 밑거름이 되고 향후의 운영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심포지엄을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시정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6.11.23

성남시장 이 대 업

## 진행순서

시간	내 용	
15:00 - 15:10	개회식	<p>전체 사회 : 정 중 완(성남시 문화예술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의례</li> <li>• 인 사 말</li> <li>• 축 사</li> </ul>
15:10 - 15:30	기조 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남 시립박물관에 거는 기대 서상우(한국박물관건축학회 명예회장, 국민대명예교수)</li> </ul>
15:30 - 16:30	주제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박물관의 건립과 과제 최근성(경기도박물관 학예관)</li> <li>• 성남의 역사문화 정체성 찾기와 시립박물관 한춘섭(성남문화원 원장)</li> <li>• 테마박물관으로서 지역박물관의 건립과 발전방향 박은실(추계예술대 문화예술경영대학원 교수)</li> </ul>
16:30 - 16:40	휴 식	
16:40 - 17:30	종합 토론	<p>토론사회 : 박승현(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장)</p> <p>토 론 자 : 손환일(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장)</p> <p>이경돈(신구대 실내건축과 교수)</p> <p>정용한(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의원)</p> <p>정종삼(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의원)</p> <p>최명숙(경원전문대 교수)</p> <p>최종민(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 교수)</p>

# 목 차

## ■ 기초발제

- 성남시립박물관 건립에 거는 기대 6  
서 상 우(국민대 명예교수, 한국박물관건축학회 명예회장)

## ■ 주제발표

- 지역박물관의 건립과 과제 14  
최 근 성(경기도박물관 학예관)
- 성남의 역사문화 정체성 찾기와 시립박물관 39  
한 춘 섭(성남문화원장, 한국폴리텍 성남대학 겸임교수)
- 테마박물관으로서 지역박물관의 건립과 발전방향 54  
박 은 실(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교수)

## ■ 참고자료

- 2006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77

[기조발제]

## 성남시립박물관 건립에 거는 기대

### 1. 건립의 목표

### 2. 뮤지엄의 테마

2-1. 시립박물관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연구에서  
테마 규명

2-2. 지역특성에 맞는 테마추구

2-3. 권장사항

### 3. 기대효과

서 상 우

국민대 명예교수  
(사)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 명예회장

# 성남시립박물관 건립에 거는 기대

서 상 우

국민대 명예교수  
(사)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 명예회장

## 1. 건립의 목표

성남시의 활성화를 고조시키고,  
도시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 마련

- 서구의 많은 도시들이 그 도시의 활성화와 관광자원화를 위해 문화시설을 집단적으로 조성하고 있다. 그 대표적 사례로는 세계 정치의 중심지인 워싱턴이 세계문화의 중심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스미소니언재단 (Smithsonian Institution) 관련 뮤지엄 (박물관과 미술관 그리고 과학관등을 총체적으로 한 의미)을 건립하여 세계인의 문화중심이 되었고, 문화예술의 최첨단을 걸어온 파리가 대형 프로젝트 10개를 구현함으로써 파리의 면모를 되찾게 되었다. 또한 프랑크푸르트를 비롯하여 바젤주변, 베를린, 휴스턴, 로스앤젤레스 등 많은 도시들이 복합 문화단지를 조성하여 도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스페인의 빌바오의 경우 세계적으로 네트워크화를 시도하고 있는 구겐하임뮤지엄(Guggenheim Museum)을 유치함으로써 관광 0순위로 급부상하는 도시가 되었다.

- 뮤지엄 건축은 그 시대의 건축을 대표하며, 가장 선진적인 정신을 가지고 건축을 진화시켜왔다. 즉, 어느 건축의 유형보다도 뮤지엄건축은 그 자체가 예술적 가치를 가지며, 건축가와 건축주 그리고 사회간의 가장 깊은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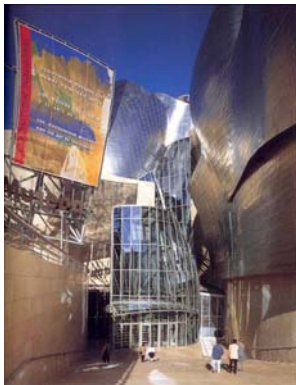
■ 시립박물관 건립방향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

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시대의 거울이라고 일컫는다. 또한 뮤지엄건축은 사회적 변화에 따른 뮤지엄의 내재적 기능과 사회적 역할이 변환되는 것을 수용하면서 건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새롭게 구상되어야 한다.



<그림-1> 빌바오의 구겐하임뮤지엄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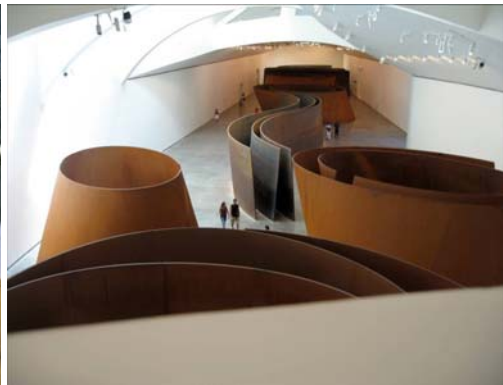
- 따라서 성남시가 건립하려는 본 사업은 도시활성화 측면에서 성남을 문화도시로 활성화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이고, 수준 높은 건축으로 성남시의 위상이 고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급적이면 건립지 주변을 넓게 확보하여 문화중심 컴플렉스(Complex)로서 조성되길 바란다.



<그림 2>주출입구



<그림 3>로비



<그림 4>전시실 내부와 Richard Serra 작품

인구 10만명에 하나되는 시발점



- 현재 성남시에는 토지박물관(사립), 신구대박물관, 주택·도시박물관(주공), 자연박물관(토공) 등 소규모 박물관이 있을 뿐 제 기능을 갖춘 뮤지엄이 전무한 상태이다. 김종국 교수의 ‘경기지역 뮤지엄 활성화를 위한 건축계획적 연구’(2001년 국민대 박사논문) p.63 표3-4에 의하면 성남시의 경우 뮤지엄 수가 2개이고, 당시 인구수가 928,196명으로 약 50만 명에 하나 꼴로 나타나고 있다.

- 서상우의 박사논문 ‘현대 뮤지엄건축에 관한 계획적 연구’ 논문에 의하면 인구 10만 명에 하나 꼴이 제안되어, 성남시는 현재인구 1백만 명을 기준으로 하여도 10개정도의 뮤지엄이 필요하며 보유현황을 감안하더라도 6개 정도가 필요한 셈이다. 또 우리나라 전체 보유현황(표-1참조)을 보더라도 15만 명에 하나 꼴이라면 7개 정도가 필요하다.

<표-1> 주요국가 현황

국가명	인구수(A)	뮤지엄 수(B)	1관당 인구수(A/B)	비 고
미 국	280백만 명	4,609관	5.9만 명	
프랑스	60백만 명	1,300관	4.5만 명	
캐나다	31백만 명	1,352관	2.2만 명	
일 본	130백만 명	3,492관	4.0만 명	
독 일	82백만 명	4,034관	2.0만 명	
폴란드	39백만 명	551관	7.0만 명	
한 국	48백만 명	339관	14.2만 명	2003년 3월 현재

### 시민의 손으로 '산교육의 장'을 마련

고전적인 의미에서 ‘뮤지엄’이란 신에게 바치기 위한 ‘컬렉션’ 그 자체를 의미하여 왔다. 그러나 1974년 ICOM(국제뮤지엄협의회) 총회에서 ‘뮤지엄 이란

사회를 위하여 그리고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비영리적 상설기관'이라는 뮤지엄의 역할이 분명해짐에 따라 과거의 뮤지엄이 '수장고'라는 오랜 정의에서 벗어나 오늘의 역할을 정의해 준 셈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뮤지엄은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교육적 역할을 도모하며, 시민의 생각을 앞서가는 노력이 필요한 산 교육장'으로서 시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 2. 뮤지엄의 테마

### 2.1. 시립박물관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연구에서 테마 규명

지방자치체 실시 이후 우후죽순 처럼 많은 박물관들이 건립되었는데 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지역박물관 하면 의례히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주 내용으로 하였다. 그러나 90년대 이후부터 지역만 달리하며 비슷한 내용으로 전개된 박물관에 식상함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차별화된 박물관들을 추구하게 되었다. 즉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된 문화적 내용 주제로 한 박물관이 건립되기 시작하였다.

- 문경과 태백 : 석탄박물관
- 전북 익산 : 보석박물관
- 강원 인제 : 산촌민속
- 강원 삼척 : 어촌민속박물관 등

성남시도 박물관 건립에 앞서 이러한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 내지 특색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정체성이 꼭 과거에서만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성남시가 지향하는 미래비전도 포괄할 수 있는 테마를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테마를 찾기 위해 ‘(가칭) 성남시립박물관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연구’ 프로그램을 발주하여 그 연구내용 중에 ‘테마’를 규명하는 전문적 제안이 있어야 할 것이다.

즉, 기본계획연구(프로그램) 내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파주시립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연구 보고서 참조)

- 1) 건립목적과 기본성격
- 2) 활동 및 운영프로그램
- 3) 입지조건분석
- 4) 전시프로그램
- 5) 건축프로그램
- 6)사업추진계획 및 정책제안

## 2.2. 지역특성에 맞는 테마추구

뮤지엄은,

- 1) 문화도시 성남을 대표할 수 있는 설정
- 2) 연구조사기관·미래지향적 전시관으로 문화공간 겸비
- 3) 평생교육기관·국제교류의 중심역할
- 4) 성남시의 랜드마크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건축 추구

## 2.3 권장사항

처음으로 건립을 계획하는 지자체의 뮤지엄은 3가지 정도의 성격을 갖춘 복합 뮤지엄을 권장한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뮤지엄을 건립하고 나서 또 다시 다른 뮤지엄을 건립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고, 또다시 건립한다고 하여도 기존의 성격을 옮긴 자리를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좋은 사례로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근교 인구 60만 명 정도의 오클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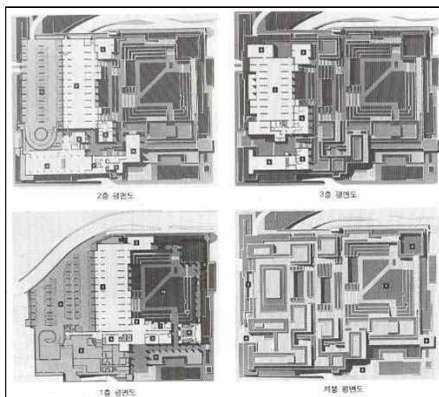
시에 있는 Oakland Museum으로 ‘역사·미술·자연과학’의 3가지 성격으로 이루어져 있다. 계단길 좌우 한쪽에는 역사·미술·자연과학 전시관이 줄지어 있으며, 다른 한 쪽에는 지원시설들로 구분되어 있다. 건립 관련 담당자와 프로그램 연구자가 반드시 벤치마킹하길 바란다.



<그림-5> 오클랜드뮤지엄 전경



<그림-6> 오클랜드뮤지엄 지붕정원



<그림-7> 평면도



<그림-8> 전시장

### 3. 기대효과

### 3.1. 장차 성남시의 문화중심 조성 역할기대

성남시는 수도권의 배후도시로서 급성장하고 있으며, 신도시개발에 따른 인구 및 문화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문화시설을 확장하는 일은 매우 당연한 발상이며, 인구 백만이 넘는 문화도시 성남의 랜드마크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3.2. ‘평생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 기대

다른 문화시설과 더불어 본 건립계획은 시민의 ‘사회교육의 장’으로서 지역 사회에 봉사하는 영구적 ‘평생교육의 장’이 될 것이며, 또한 학생들에게는 교육과 체험을 위한 ‘학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3.3. 시민의 애향심을 유발시키고, 컬렉션 수집의 계기 마련

본 사업은 최초의 뮤지엄을 건립하기 위한 것 뿐 아니라 성남시를 상징하는 테마의 전시물을 수집・정리하여 전시・교육함으로써 문화도시 성남의 우수성을 알리고 시민들에게 지역 정체성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을 심어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현재 전시 할 컬렉션이 전무한 상태에서 컬렉션을 기증 받을 계기가 마련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9>High Museum Complex, Atlanta



<그림 10>San Francisco 현대미술관과 복합문화 단지

[주제발표 01]

## 지역박물관의 건립과 과제

1. 들어가는 말
2. 하고 싶은 말
  - 2-1. 박물관의 외적요인
  - 2-2. 박물관의 건축의 형태와 구조
  - 2-3. 박물관의 성격과 특성
  - 2-4. 박물관의 기능 검토
  - 2-5. 박물관 운영준비
3. 나가는 말

최 근 성

경기도박물관 학예관

## 지역박물관의 건립과 과제

최 근 성

경기도박물관 학예관

### 1. 들어가는 말

60년대를 전후한 지역박물관의 건립 목적이나 취지는 대체로 지역문화의 홍보나 특정 분야를 널리 알리기 위함이었다. 어찌 보면 지역주민에 대한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주기보다는 지역문화의 자랑거리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보다 더 큰 것으로 여겨진다.

80년대 이후 국가의 경제 성장과 지적, 문화적 수준이 선진국에 버금가게 되자 그 후반기부터 여러 지역박물관들의 건립계획이 발표되어 마침내 90년대에 이르러 수 개가 건립하게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새천년으로 이어지면서 기초지방 자치단체에까지 확산되어 오늘날에는 우후죽순으로 건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박물관의 수적 팽창에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지만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예컨대 건립의 기간, 건립 위치 등을 포함하여 하드웨어 부분에 있어 박물관 건축의 형태와 구조(편의시설 포함), 소프트웨어 부분에 있어 박물관의 성격과 특성, 전시계획, 유물 수집·관리, 사회교육 시스템, 그밖에 운영부분에 있어 조직과 인력, 예

산확보와 수익사업 등이 바로 그것이다.

어쩌면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은 “우선 박물관을 짓고 보겠다.”는 전근대적 발상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 아닌지, 또는 건립의도의 정치적 목적이 너무 강하게 작용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귀결일지 모르겠다. 오늘날의 박물관이 시민의 문화욕구를 채워주는 시설이며, 그들의 가치관을 올바르게 새롭게 정립시키는 종합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라는 거울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문제점은 보다 빠른 시일 내에 개선, 보완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본 발표는 지역박물관을 기획, 건립하고 운영한 실무경험과 여러 지역박물관의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보고 느꼈던 바를 말씀드리고자 한다. 여기에는 면밀한 분석을 통해 얻어진 내용이 아니라는 점에서 다소 억측에 불과한 면도 없지 않을 것이다. 본 발표를 통해 우리의 지역박물관이 제대로 계획된 건립이 이루어져 지역 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주면서 나아가 세계 선진 박물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위상이 정립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 2. 하고 싶은 말

### 2.1. 박물관의 외적요인

#### 1) 건립기간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박물관의 건립기간이 규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보통 4~5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나 선진국의 건립기간이 7~8년 정도가 걸리는 시간에 비하여 짧은 편이다. 선진국의 경우 박물관의 성격을 정립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거기에는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함은 물론 지역 주민의 의견(여론 조사 및 공청회 등)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건립계획 수립 시 사전에 전문 연구기관에 학술 용역을 의뢰하여



앞서 지적한 박물관의 성격, 위치, 규모, 운영방향, 운영조직과 예산규모 등을 사전 점검할 수 있는 절차를 갖는 것이 좋다.

이러한 분위기가 조성되면 그에 걸 맞는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위원회는 지역 저명인사나, 관련 행정인사 그리고 박물관을 비롯한 관련 사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인원은 운영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대략 20여명 정도로 하는 것이 좋을 듯싶다. 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과 아울러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현실화 시켜가는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건립 추진단을 조직·운영하게 된다. 이 추진단은 박물관에 관련된 외부 환경에 대한 조사연구와 건축 및 시설 등의 하드웨어 부분을 비롯하여 유물 관리 및 전시계획 등의 소프트웨어 부분까지 실행하게 된다. 한편으로는 박물관 성격에 맞는 전시유물 확보와 소장품을 끊임없이 수집하여 개관 전시와 향후 특별전(기획전)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유물확보에 매진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개관 및 향후 운영에 대비한 기구와 인력 확보,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기관, 문화단체, 타박물관 등의 유관기관과의 협조방안 마련, 홍보 전략과 홍보활동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자연히 많은 시간이 소요하게 되는 것이다.

선진국과 또 다른 문제는 건립 주체(지방자치단체)가 건립에 대한 제반 사항 및 시기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여 결정한다는 점이다. 즉 외국의 경우 지방자치 단체장이 박물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인식하여 재임 중에 개관을 목표로 하지 않고 추진한다. 어쩌면 이것은 그들의 문화적 성숙도에 기인하는 것으로 개관을 하는 단체장보다는 박물관 건립의 정책적 결정과 건립에 따른 지원정책 과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박물관 건립 결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후임 단체장도 지속적으로 박물관 건립에 지원하였다는 자부심과 긍지로 장기간에 걸쳐 박물관 개관을 끊임없이 추진하게 되는 것이다.

## 2) 건립위치

우리나라의 경우 박물관의 건립위치에 대해서는 학자들에 따라 다양한 의

견이 제시되지만 여기서는 3가지 측면 정도로 피력해 보고자 한다.

먼저 관광적인 측면으로서, 박물관 인접 지역에 자연관광지나 문화유적지 등과의 연계성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잔존하고 있는가를 판단하여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이것은 관람객 확보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관광객에게 그 지역문화를 널리 알리는 좋은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단점이 있다면 지역 주민을 위한 접근성 문제이다. 이는 就學前 어린이나, 노인들의 경우 생활지로부터 다소 거리가 있어 자주 방문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학습 활동에 다소 지장을 줄 염려가 있다.

다음은 관람객 편의성 측면으로서, 도심지에 설립하는 경우이다. 관람객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 관람객 확보에 좋은 영향을 주면서 지역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런 반면에 야외전시 공간과 휴식 공간 등 넓은 부지를 확보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며,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또한 도심에는 공기에 많은 분진을 내포하고 있어 유물보존 관리에 다소 지장을 주며, 쾌적한 전시환경을 추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교통체증 및 외부 접근성이 떨어져 타 지역 주민이나, 외래 관람객 유치에 용이하지 못하다.

관리·운영 측면으로서는, 도시 근교지역에 설립하는 경우이다. 도시형 박물관과 관광지형 박물관과의 중간형식을 띄고 있다. 따라서 양쪽 형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결 과제가 있다. 우선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외곽도로가 잘 조성된 곳이나, 외래 관람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야 된다.

또한 건립 주변 환경은 자연환경이 비교적 좋은 곳을 선택하되 늪지나, 계곡부분, 습도가 많은 안개지역 등은 유물 보존관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피하는 것이 좋다.

좀더 적극적인 방안으로는 주5일 근무제를 감안하여 관람객이 하루의 문화적 여가를 뜻있게 보낼 수 있도록 숙박시설이나 식당가, 가족과 함께 놀고 즐길 수 있는 시설 곧, 퓨전 문화시설이 갖추어 질 수 있는 곳을 선정하거나 이

러한 요소가 포함된 도시계획에 대비하여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2.2. 박물관 건축의 형태와 구조

박물관의 건축형태는 그 박물관의 성격을 나타내 주는 상징물이다. 그것은 곧 건물형태가 예술품이요 볼거리이자 그 박물관의 첫 인상을 오랫동안 각인시켜 주기 때문이다. 박물관의 주제에 따라 표출하고자 하는 소재를 다양하게 찾아낼 수는 있으나 그러한 요소들이 그 표현성과 생김새가 주위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에 잘 조화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모양새가 박물관 기능에 부합하면서, 활용성이 높은 공간으로 구성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건물의 구조는 한번 만들어지면 쉽게 고치기 어려운 까닭에 매우 신중하게 계획되어야만 한다. 박물관의 건물은 크게 전시Zone, 수장고Zone, 교육Zone, 관리Zone 등의 4가지 구역으로 나뉘어 질 수 있다. 먼저 전시구역에는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영상전시실, 화상정보실 등이 포함되어 있는 곳으로 주로 관람객이 사용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이곳은 관람동선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화재 등으로 인한 비상시를 대비하여 순로의 진행 방향을 단순화 시켜야 한다. 관람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간에 휴게공간을 설치하여 눈의 피로를 덜어줄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휴게공간 내에 간단한 먹을거리나, 마실 거리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한데, 가급적 외부환경과 호흡을 함께할 수 있으며, 관람객이 서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다만 전시공간의 분위기를 해치게 해서는 안 되며, 가급적 지류나 의류 혹은 서화류와 같이 온습도에 예민한 유물이 전시되어 있는 곳의 인접한 공간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앙홀은 관람객이 드나드는 곳이며,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안내 데스크가 있는 곳으로서 늘 관람객이 분비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 홀은

가능한 넓고, 높아야만 쾌적한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 예컨대, 각종 개막행사나 또는 음악회, 혹은 무도회와 같은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져야 될 것이다.

전시구역에는 어떠한 경우이든 간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계단이 없는 램프, 에스컬레이터 혹은 엘리베이터 등)이나 장비(휠체어나 휴대용 비상 신호기 등)가 갖추어져야 된다. 또 어린이를 위하여 안전사고에 대비, 가급적 마감재를 尖豆型이나 凹凸型 보다는 流線型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전시실과 전시실 사이에는 防火門을 설치하여 유사 시 화재가 다른 전시실로 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전시실의 출입문은 향후 대형 전시물이 드나들 수 있도록 높이와 폭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한다. 전시에는 조명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천정이나 벽면에 조명레일을 설치하되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아일랜드형 전시 진열장을 위해 바닥에 여러 개의 전기 플러그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

전시공간이 다소 여유가 있다면 각종 전시 기자재(조명기, 전시보조대, 네임택, 패널, 이동식 진열장 등등)를 비치할 수 있는 전시작업 준비실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전시실에는 유물의 보존과 쾌적한 전시 환경을 위해 반드시 공조장치와 향온·향습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공조장치는 전시실 및 수장고의 악취나 분진 등 오염된 공기를 제거하기 위하여 내·외부 공기가 순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향온·습 시설은 유물의 재질에 따라 온·습도를 달리할 수 있도록 수장고 및 전시실별로 온습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된다. 필요에 따라서는 닥트를 벽면이나 바닥에도 배치하여 실내에 어디서나 일정한 온·습도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시유물의 이동거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장고와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수장고가 지하일 경우 엘리베이터를 설치·활용하되 가까운 거리에 배치되어야 한다. 엘리베이터의 수납공간은 유물 반출입이 용이하도록 넓고 높게 제작하되 무거운 유물을 탑재할 수 있는 용량이

큰 것이 좋다. 정지 시 유물의 충격이 가지 않도록 기계식 보다는 유압식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엘리베이터의 턱과 건물 사이의 이격이 최대한 밀착되게 하여 유물-트럭의 바퀴가 빠지거나 충격이 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유물-트럭이 움직일 때 유물의 충격이 가지 않도록 전시실이나 유물동선에 요철의 문턱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관람동선의 유연한 흐름과 전시의 가변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전시실 가운데에 기둥을 세우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획전시실은 다양한 유물의 전시에 대응하고 타 국내외 박물관과의 교류나 대여전시에 대비하여 적어도 200~300평 정도의 규모를 가져야 한다. 또한 가변성이 많은 공간임으로 천정의 높이를 상설 전시실보다 높게 책정하고 전시연출이 용이하면서 전시 구획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레일형 이동식 칸막이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야외전시장은 방문객이나 관람객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전시공간이자 휴식 공간이다. 뿐만 아니라 야외전시는 그 박물관의 이미지를 가장 먼저 보여주면서 실내전시로 유도하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므로 야외전시는 유물의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일반 전시와 마찬가지로 전시 연출이 필요하다. 예컨대 분야별로 전시물을 배치한다거나 박물관에 부합되는 특정 유물을 유형별로 다양하게 비교전시하기도 하고, 전시물을 관람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다. 다만 야외전시는 유물의 노출이 많은 곳이므로 훼손이 되지 않도록 보호각, Fence 등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야외전시장은 공간이 넓은 관계로 관람동선의 순로를 잘 조성하여 관람객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되 단체관람 시 불편하지 않도록 주변 환경을 적절하게 꾸며야 한다. 특히 조경과 전시는 매우 긴요한 관계임으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수장고는 유물을 수납하는 공간으로서 유물의 안전한 관리와 쾌적한 보존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다. 수장고에는 일반수장고, 특별수장고, 임시수장고, 약품소독실, 사진실, 유물정리실, 세척실, 실측실, 기자재실 등등의 공간으로 구성된다. 수장고의 규모는 전시실과 비슷하거나 더 큰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박물관의 성격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향후 늘어나는 유물에 충분히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수장고의 높이는 7~8m 정도로 하여 높은 유물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내부 重層 구조로 꾸며 많은 유물을 격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일반수장고는 대개 온습도에 민감하지 않고 귀중하지 않은 유물이나 연구 자료를 수납하는 곳이다.

특별수장고는 유물의 재질별로 온습도를 달리하여 보관하기 위하여 여러 개를 두는 것이 상례이다. 또 국보나 보물과 같은 귀중 유물을 별도로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기도 한다. 임시수장고는 신수유물(구입, 기증, 발굴, 수습 등)을 보관하는 곳으로 유물이 소장품으로 완전히 등재될 때까지 잠시 보관하는 수납공간이다.

교육공간은 강당, 회의실, 실습실 등으로 구성되는데, 그 위치는 가급적 전시실이나, 수장 공간과 다소 분리된 조용한 구역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 시에 나오는 여러 가지 소음을 다른 관람객에게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한 조치이며, 나아가 교육생들이 교육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이다. 강당은 단순히 강의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각종 공연(무형문화재, 연극, 음악, 영화상영 등)을 염두에 두어 무대를 크게 설치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거기에 버금가는 음향이나 조명 및 영상시설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외부로 소리가 나가지 않도록 방음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강당의 규모는 박물관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적어도 300석 정도 이상이 되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공연준비실, 강사실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좌석 배치는 가급적 부채꼴 형을 취하면서 극장식 형태로 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좌석에 필기를 할 수 있도록 접이식 필경판을 부착하면 유용하게 활용된다.

관리영역은 사무실, 연구실, 관장실, 도서실, 기계실, 방재실, 각종 편의시설 등 박물관을 관리, 운영하기 위한 제반 사무공간인 셈이다. 사무실은 대개 총무부서와 시설관리 부서의 사무 공간으로서 일반 사무실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소형 창고와 시설관리 비품 등을 보관할 수 있는 부대시

설 정도를 갖추면 된다. 연구실은 박물관의 유물관리, 전시, 사회교육, 학술조사 등의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연구직의 업무공간으로서 사무실, 회의실, 각종 기자재실, 작업실, 유물보존과학실 등등의 공간이 배치되어 있다. 특히 작업실과 보존과학실은 유물을 조사, 연구하는 작업공간으로서, 여기에는 상하수도, 세척대, 실측작업대, 각종 장비 등이 설치되어 있는 공간으로서 충분한 면적 확보와 방음 및 진동에 대비하여야 한다. 이곳은 유물을 다루는 작업공간으로서 유물-트럭이 움직일 때 충격을 받지 않도록 문턱이나, 계단이나, 요철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또한 유물을 위해 온습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먼지나 분진을 제거할 수 있는 보존환경(패키지 온습도나 공조기 등 설치)을 마련해야 된다.

도서실은 학술활동을 지원하는 전공도서를 비치, 열람하는 공간임으로 전문서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학술 및 전시업무에 보다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요즈음에는 관련 전공자 및 일반 시민들까지 이용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보다 많은 열람석 확보와 더불어 정보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아울러 매년마다 출간되는 각종 보고서나 도록, 홍보물을 충분히 보관할 수 있도록 큰 규모의 도서 창고를 설치해야 된다.

기계실은 난방, 전기, 공조, 하수처리 등의 기기설비를 갖춘 작업공간이다. 이곳은 각종 기기장비가 가동되는 관계로 소음이나 분진이 상시적으로 발생되어 유물관리나 전시 관람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있다. 대개 기계실은 수장고와 같이 지하에 배치되어 박물관 건물 전체에 진동을 주게 됨으로 가급적 건물외부로 배치하거나 별도의 건물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

### 2.3. 박물관의 성격과 특성

충전의 지역박물관은 대개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조사, 연구하여 이를 널리 알리고 보여주는 것이 거의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박물관이 중복적으로 만들지는 경우가 허다하게 되

고, 그 전시 유형도 비슷하여 관람객에게 식상함을 더해 주고 있다. 그 결과 박물관이 시민으로부터 외면당하게 되어 마침내 박물관의 기능을 상실하고 전시관으로 전락을 초래하게 된다.

그러면 박물관의 성격을 어떻게 정립하여 특성화 시킬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가능하다면 그 지역의 전통 문화적 요소가 어떠한 양상으로 잔존하고 있으며, 향후 이를 발전시켜 문화 자원화 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지를 우선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유형적인 요소와 무형적인 요소로 나누어 고려해 보아야 한다. 예컨대 유형적인 요소를 활용한 박물관으로는 경기도 광주관요박물관, 익산의 미륵사지전시관, 부산 복천동 고분전시관, 목포 해양박물관, 국립 김해박물관 등이 있으며, 수원 화성박물관, 고창 고인돌전시관 등은 건립 계획 중에 있다. 무형적 요소의 박물관으로는 안성 맞춤박물관, 청주 고인쇄박물관 등이 있으며 경기도에서 효행기념관, 실학박물관을 건립 계획 중에 있다.

혹은 과거의 전통은 없어도 최근의 현재적 요소나 특산물을 극대화 시켜가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겠다. 나주 배 박물관, 장기곶 등대박물관, 대전 과학관, 광릉 수목전시관, 강릉 함상전시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 □ 년도별 전국 등록박물관 현황

시·도	계	박 물 관		
		공공	사립	대학
2003.12.31 기준	<b>289</b>	88	116	85
2004.12.31 기준	<b>328</b>	101	133	94
2005.12.31 기준	<b>364</b>	125	140	99

- 우리나라 박물관은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 나라의 적정한 박물관 미술관 규모가 얼마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유네스코에서 각국의 박물관 미술관 규모를 비교하는 준거는 인구 10만명당 관의 개수이다. G7에 속하는 국가의 박물관 미술관 수는 인구 10만명당 평균 2.7관으로 우리나라 박물관 미술관 수가 이 규모에 이르려면



현재보다 약 3배 정도 늘어나야 한다.

우리나라의 박물관 미술관은 전체적인 규모 면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적 불균형의 문제도 함께 안고 있다. 박물관 미술관은 남한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박물관의 41.7%, 미술관의 61.2%가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박물관 미술관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의 경우라 하더라도 인구 10만명당 박물관 수는 여전히 낮은 상태이다.

□ 전국 등록박물관 현황

(2005.12.31기준)

시·도	계	박 물 관		
		공공	사립	대학
계	364	125	140	99
서울	86	17	44	25
부산	15	6	0	9
대구	7	1	3	3
인천	3	1	1	1
광주	6	3	0	3
대전	13	4	3	6
울산	1	0	0	1
경기	75	28	38	11
강원	17	8	4	5
충북	20	7	5	8
충남	24	9	11	4
전북	17	8	3	6
전남	11	5	4	2
경북	27	11	5	11
경남	27	14	10	3
제주	13	3	9	1

참고자료로 전국 등록박물관 현황을 보면 사립의 경우 대부분 전문(테마) 박물관을 지향하고 있으며, 대학박물관의 경우 직접 발굴 또는 구입한 유물을 수장, 전시하고 있다.

■ 시립박물관 건립방향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

□ 경기도내 시·군·구별 공립 박물관시설 현황 (2005.12.31기준)

시·군·구	인구수	채 정 자립도	박물관				비 고
			계	공립	사립	대학	
경기(31)	10,697,215	81.2	75	28	36	11	국립제외
수원시	1,045,587	125.4	3			3	화성박물관과 수원역사박물관 추진 중
성남시	983,075	143.3	3		3		
부천시	855,359	125.2	9	9			향토사료관, 자연생태, 만화, 물, 유류 자기, 활, 교육, 수석, 로보파크 등
안양시	625,350	102.0	1	1			안양역사관
안산시	679,011	110.9	2	2			단원, 성호-인물중심
용인시	693,660	239.2	11	1	7	3	경기도박물관(광역)
평택시	383,976	65.5	0				
광명시	327,828	65.1	3	1	2		오리 이원익기념관
시흥시	387,239	93.2	2	1	1		시흥역사자료전시관
군포시	277,781	78.6	0				
화성시	296,530	87.3	3		1	2	용주사효행박물관(경기문화재단)
이천시	192,271	60.4	3	1	1	1	이천시립박물관
김포시	207,229	65.4	1		1		
광주시	214,498	73.1	4	1	3		
안성시	157,130	46.0	3	2		1	안성맞춤, 3·1운동기념관
하남시	132,850	61.2	1	1			하남역사박물관
의왕시	145,952	57.2	1		1		
오산시	129,843	48.6	1			1	
여주군	104,260	38.7	11	3	8		향토사료관, 명성왕후기념관, 세계생활도자관
양평군	85,533	24.0	1	1			화서기념관 (친환경농업박물관 개관 준비중)
파천시	60,956	265.0	0	0			
고양시	904,077	123.3	2	1	1		고양민속전시관
의정부시	402,410	76.2	0				
남양주시	450,054	75.1	4	1	3		다산기념관
파주시	261,770	53.6	2		2		
구리시	192,548	60.5	0				
포천시	155,242	44.4	1	0			
양주시	160,589	43.7	1		1		
동두천시	82,623	19.7	1	1			자유수호평화박물관
가평군	54,861	26.3	1		1		
연천군	47,123	18.3	1	1			향토사료관

-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경기도박물관을 제외한 경기도내 공립 박물관 27개 시설 중 지역의 ‘역사내지 민속’ 등 향토사를 다룬 시설 수는 9개 시설로 전부 안양역사관을 제외하고 연면적 400평 미만의 소규모 시설로 운영 중이며, 6개 시설이 지역 출신의 대표적 인물을 다룬 기념관 내지 자료관의 형태를 띠고 있다.

□ 공립박물관 중 지역의 역사와 민속(향토사)를 주 내용을 다룬 박물관

시·도	시군구	구분	시 설 명	개 연 월 일	조 직 (명)	규모		연 관 람 인 원	비고
						m <sup>2</sup>	평		
서울	종로구	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2002. 5.21	88	20,166	6,100	359,843	광역
부산	남구	박물관	부산광역시립박물관	1978. 7.11	53	10,477	3,169	477,576	광역
인천	연수구	박물관	인천광역시립박물관	1946. 4. 1	14	2,692	814	(공사중)	광역
광주	북구	박물관	광주시립민속박물관	1987.11. 1	32	6,459	1,954	349,875	광역
대전	중구	자료관	대전광역시향토자료관	1991.12. 20	3	2,287	692	80,842	광역
경기	용인시	박물관	경기도박물관	1996. 6.21	56	10,216	3,090	653,151	광역
강원	원주시	박물관	원주시립박물관	2000.11.14	12	3,394	1,027	22,584	시립
	삼척시	박물관	삼척시립박물관	2000. 3.29	8	2,580	781	42,158	시립
충북	충주시	박물관	충주박물관	1986.11.25	12	2,376	719	109,792	시립
전북	전주시	박물관	전주역사박물관	2002. 5.24	9	4,530	1,373	43,920	시립
경북	안동시	박물관	안동시립민속박물관	1992. 6.26	23	3,091	935	131,469	시립
경남	의령군	박물관	의령박물관	1993. 4.21	3	4,328	1,309	15,789	군립
	함안군	박물관	함안박물관	2003.10.30	8	19,662	5,948	24,920	군립
	창녕군	박물관	창녕박물관	1996. 3. 2	3	2,215	670	28,876	군립
	거창군	박물관	거창박물관	1988. 5.20	5	11,012	3,331	21,003	시립

\* 박물관 규모별 분류 기준에 따른 건축연면적이 2,000m<sup>2</sup>(약600평)이하인 소규모 박물관 제외

\* 연관람 인원이 파악되지 않은 시설 제외

-광역에서 운영 중인 종합박물관의 경우 35만에서 65만까지 비교적 많은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으나 기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박물관의 경우 연평균 관람객이 약 2만5천여명으로 일일 평균 70여명이 방문하고 있는 상태이다.

■ 시립박물관 건립방향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

□ 공립박물관 중 지역특색(테마)을 주 내용을 다룬 박물관

시·도	시군구	구분	시 설 명	개 연 월 일	조 직 (명)	시설		연 관 랑 인 원	비고
						m <sup>2</sup>	평		
서울	서대문	박물관	서대문자연사박물관	2003. 7.10	17	6,949	2,102	280,257	
	강서구	박물관	허준박물관	2005. 3.23	11	1,691	512	118,985	8개월
	용산구	기념관	전쟁기념관	1994. 6.10	77	28,819	8,718	738,310	
	서대문	역사관	서대문형무소역사관	1998.11. 5	15	292	88	434,691	실내 전시공간 규모
부산	동래구	박물관	북천박물관	1996.10. 5	29	7,084	2,143	113,093	
	중구	박물관	부산근대역사관	2003. 7. 3	13	2,196	664	103,253	
	동래구	박물관	해양자연사박물관	1994. 6.10	23	6,821	2,063	130,000	
대전	동구	박물관	한밭교육박물관	1992. 7.10	11	2,117	640	80,619	
경기	부천시	박물관	부천자연생태박물관	2000. 9.23	6	803	243	135,723	
	부천시	박물관	한국만화박물관	2001.10.12	7	1,851	560	129,507	
	여주시	기념관	명성황후기념관	2000. 4.25	8	431	130	182,798	
	남양주	기념관	다산기념관	1989. 1	4	516	156	155,000	
강원	강릉시	박물관	오죽헌시립박물관	1992.11.15	23	2,641	799	725,754	
	태백시	박물관	태백석탄박물관	1997. 5.27	13	6,850	2,072	338,040	
충북	청주시	박물관	청주고인쇄박물관	1992. 3.17	4	4,868	1,473	185,510	
	진천군	박물관	진천 중박물관	2005. 9.22	5	2,858	865	24,112	3개월
충남	보령시	박물관	보령석탄박물관	1995. 5.18	5	1,385	419	212,300	
전북	익산시	박물관	미륵사지유물전시관	1997. 5. 9	22	25,576	7,737	323,224	
	익산시	박물관	익산시보석박물관	2002. 5.22	15	7,151	2,163	157,575	화석 전시관
	김제시	박물관	수리민속유물전시관	1998. 4.28	18	2,287	692	123,352	
전남	영암군	박물관	영산호관광농업박물관	1993. 9.24	18	2,733	827	166,448	
경북	문경시	박물관	문경석탄박물관	1999. 5.20	6	9,775	2,957	305,507	
	고령군	박물관	대가야박물관	2005. 4. 2	14	5,022	1,519	278,398	8개월
	문경시	문화관	문경유교문화관	2004. 5. 1	1	732	221	200,000	
	문경시	전시관	문도자기전시관	2002. 6.17	5	949	287	300,000	
	영주시	박물관	소수박물관	2004. 9.22	16	1,540	466	534,559	
경남	김해시	박물관	대성동고분박물관	2003. 8.29	11	2,167	656	413,647	
	고성군	박물관	고성공룡박물관	2005.11. 9	12	3,441	1,041	442,602	2개월
제주	제주시	박물관	민속자연사박물관	1984. 5.24	28	5,947	1,799	837,649	
	서귀포	박물관	감귤박물관	2005. 2.25		3,166	958	59,934	10개월

\* 박물관 규모별 분류 기준에 따른 건축연면적이 2,000m<sup>2</sup>(약600평)이하인 소규모 박물관 제외하였으나 소규모임에 관람인원이 10만명 이상인 박물관 포함

\* 연관람 인원이 파악되지 않은 시설 제외

- 물론 관람객 수로 해당 시설의 내용과 질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방문객을 끌어들이지 못하는 문화시설은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한 골치거리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 2.4. 박물관의 기능 검토

### 1) 조사 연구

박물관 업무의 근간이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조사·연구 분야이다. 박물관의 연구과제는 넓게는 박물관의 정체성을 규명해 가는 것이며, 좁게는 개개 유물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그 유물의 실체를 찾아내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일련의 작업들은 유물관리 및 전시나 사회교육을 직간접적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다만 분야별 연구 인력의 확보가 지난한 관계로 지역의 대학이나 연구소를 통해 공동연구나 학술 용역사업으로 추진한다면 보다 빠른 기간 내에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 2) 전시계획

전시는 박물관의 기능 가운데 꽃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하며, 일반 관람객들과 직접적으로 맞닿는 부분으로서 그 박물관의 이미지나 위상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이다. 우선 전시주제와 시나리오 구성 문제이다. 전시주제는 박물관의 성격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설정하고 각 중 주제(전시실) 별로 호환성이 유지되게 하여 시나리오의 전개가 매끄럽게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좋다. 다만 중 주제를 설정하는 방안은 분야별(장르별)로 큰 주제에 따라 적절히 배분하면 될 것이다. 전시주제의 선정은 한 두 사람의 생각으로 이루어지기 매우 어려운 관계로 다양한 장르의 전공자들이 참여하여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무진에서 검토하여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수번에 걸친 토의로 최종 확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중요한 점은 편향적이고 부조화 되는 요

인을 잘 조정해야 된다.

전시란 적어도 관람객에게 잔상이 오래갈 수 있어야 된다. 우리의 경우 좁은 전시실에 많은 것을 보여주려고 이것저것들을 밀어 넣거나 전시물에 대한 정보를 소상하게 전달하고자 많은 패널을 설치하려는 경향이 짙다. 이것은 오히려 관람의 역효과를 가져와 그 박물관이 추구하고자 했던 전시의도를 깨뜨려 버리게 된다. 가능한 간명하면서도 절제된 구상이 바람직하다.

전시기획 과정은 주제선정에 필요한 사전 정보 및 자료조사⇒ 전시 유물선정과 유물소장 기관(개인소장자)과의 협조⇒ 전시 시나리오 작성⇒ 관련 부대행사(학술세미나를 포함한 참여 및 체험행사) 준비⇒ 공간 구성 및 유물 가상배치⇒ 전시디자인 기획⇒ 전시도록 발간 및 홍보물 제작⇒ 전시공사(진열장 제작, 전시補助物 제작, 전시실 마감공사 등)⇒ 홍보⇒ 유물 운송(보험가입 및 대여료 지급) 및 Setting 등 실로 많은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 대비하여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전시의 질적 수준이 저하되어 마침내는 관람객에게 외면당하는 박물관이 될 것이다. 따라서 개관을 준비하는 박물관이라면 상설전시 뿐만 아니라 바로 코앞에 닥쳐올 기획특별전을 적어도 1~2년 전부터 착실히 준비해야만 향후 지속적으로 기획전을 유지하게 될 수 있다.

### 3) 유물 수집 · 관리

유물 수집은 박물관의 역할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며, 제일 우선시 되는 기능이다. 유물 수집은 전시를 목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물을 통해 그 지역의 전통문화를 규명해 내고자하는 의미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유물은 일반 상품과 달리 언제,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는 점과 가격이 일정하지 않은 점으로 인해 수집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유물 수집은 박물관 기획 단계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인 것이다. 더욱이 전시 가치가 뛰어난 유물의 경우 상당한 고가인 까닭에 필요한 수량만큼 구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예산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유물 수집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발굴 및 수습, 기증, 위

탁, 구입 등의 유형이다. 그중 가장 좋은 방안은 발굴이나 수습에 의한 것이다. 이는 유물의 出土와 사용 시기 및 사용 목적까지 유추해 낼 수 있는 주요한 단서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자료라는 점이다. 기증이나 위탁유물 중 고문서나 遺品 등도 전자와 같은 맥락에서 귀중한 자료이다. 특히 기증은 단순히 유물을 확보한다는 차원을 넘어 지역주민이 박물관 건립에 동참하는 주체의식을 불러일으키고, 박물관 건립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된다는 점이다.

구입은 가능한 그 박물관의 성격에 부합하고 그 지역의 문화를 조명해 줄 수 있는 유물을 중심으로 매도하되, 비교전시나 특별전을 대비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물이 고가인 관계로 구입 시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신수유물은 가능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유물보관의 안전뿐만 아니라 각종 유물의 해충으로부터 기소장유물 보존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신수유물의 정리는 그때그때 처리하지 않으면 유물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기록하기 어렵게 된다. 더욱이 박물관 건립을 준비하는 기관이라면 상설전시, 기획전시, 연구자료 등의 분류를 미리 선정하지 않으면 개관 준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향후 유물관리에도 오랜 기간 악영향을 미치게 됨을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대장정리, 관리카드 정리, 각종 사진·필름 자료를 즉시 확보하지 않으면 유물도록이나 각종 홍보물 제작에 많은 시간이 소요하게 된다. 중요 유물의 사진촬영은 전시 및 각종 홍보물 제작 시에 신속한 대처와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별도의 예산을 세워 사진작가를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유물의 보존처리 또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유물수집과 동시에 꾸준히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아마도 전시물 확보 및 소장품의 훼손방지를 위해서는 거의 필수적일 것이다. 유물의 보관은 반드시 재질별(土陶類, 금속류, 石器類, 지류, 纖維類, 皮革類 등)로 온습도를 달리하여 보관해야 한다. 그 밖에 유물보관대를 다양하게 제작하여 유물 특성에 알맞게 보관하도록 한다.

#### 4) 교육 프로그램 개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늘날의 박물관은 주민에게 보여만 주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종합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더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교육 프로그램을 건립 준비단계에서 철저한 계획이 요망된다. 프로그램은 교육 대상에 따라 연령별, 계층별로 다양하게 운영하되 현장학습과 체험교육은 학습지도 방안에 걸 맞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장애인은 박물관 현장학습과 동시에 전시물을 그려보고, 만들어보고, 만져보고, 점자를 활용한 교재사용으로 가능한 5감을 통해 느껴볼 수 있는 학습으로 구성한다.

그 밖에 여러 가지 공연이나 강연, 문화행사를 시의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사전계획을 충분히 수립해야 한다. 특히 개관기념 특별전을 위한 부대행사도 사전에 계획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공연이나 행사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언제나 박물관에 오면 늘 새로운 볼거리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심어주어 많은 관람객이 찾을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되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개관에 앞서 우선적으로 시범 실시하면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현장감 있게 준비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어쨌든 이것은 박물관 건립에 대한 사전 홍보효과를 극대화 시켜주는 초석이 될 것이다.

#### 5) 종합 문화공간 기능

오늘날의 박물관은 문화의 다양한 장르를 소화해 낼 수 있는 종합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관람객의 다양한 욕구를 채워주기 위하여 유물전시뿐만 아니라 음악회, 전통춤, 무형문화재 등의 각종 공연이나 전통공예 시연회와 같은 무형적인 요소들을 보여주고 있다. 혹은 전통혼례와 같은 행사에 직접 참여해 보기도 하고 관람을 통해 즐겨볼 수 있는 행사를 열기도 한다.

기획전과 연계한 체험 및 참여행사는 누구나 즐기면서 쉽게 체득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 또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한다. 해외교류전의 경우에는 그 나라의 민속 문화에서 현대문화까지 여러 가



지 요소들을 두루 체험할 수 있는 참여행사를 개최한다.

야외 전시장은 유물을 전시하는 장소로만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가 쉽게 와서 편안히 즐길 수 있는 휴게공간이나 산책로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변 경관을 조성해 가고 있다. 예컨대 전시동선 주변에 평상, 정자, 원두막, 물레방아 등과 같은 전시물이면서도 휴게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꾸며준다.

이에 편승하여 박물관의 편의시설은 종전에서 보는 단순히 불편을 해소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즐기기 위한 시설로 탈바꿈하고 있다. 예컨대 초기의 식당은 직원을 위해 음식을 제공하는 정도로 사용되었지만 이제는 어린 관람객이 편히 쉬면서 식사를 곁들일 수 있는 곳으로 점차 바뀌고 있으며, 성인 관람객을 위한 서비스 공간, 즉 Restaurant이나 Coffee-Shop과 같은 시설로 변환되어 가고 있다. 이것은 보고 즐기는 곳뿐만 아니라 느끼고 나누는 문화 공간(커뮤니-코아)으로 전이하고 있는 것이다. 또 우천 시 단체관람 학생들에게 식사할 장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공간 확보는 물론 간단한 요기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스넥 코너도 설치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박물관을 널리 알리는 요소이며 관람객에게는 학습자료이자 추억거리가 될 수 있는 문화 상품 개발과 이를 운영하는 뮤지엄-샵의 설치도 필수적이다. 이러한 것들은 박물관 운영 예산에 일조하는 수익사업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일인 것이다.

놀이시설은 어린 학생이나 혹은 가족이 함께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는 놀이 학습공간이다. 특히 유아들에게는 가정이나 유치원에서 늘 체험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놀이를 통해 교육효과를 얻을 수 있는 유익한 학습장인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늘 친숙한 소재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별로 이용하지 못했던 소재, 혹은 여럿이 공동으로 즐길 수 있는 소재, 선조들의 생활 문화를 보여주는 등의 다양한 소재를 설치하여 단조롭고 지루한 놀이의 체험장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곧 아동들이 많은 시간을 박물관에서 보낼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만 어린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소재와 주위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야외무대는 각종 무형문화재의 공연이나 음악공연, 혹은 시연회 등을 실외에서 수행하여 특정한 문화를 무료로 보여주는 서비스 공간이며, 학습공간인 셈이다. 여기는 노천극장과 같은 곳이지만 천막이나 차양 막을 설치하여 무더울 때나 우천 시에도 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단체 학생들이 운집하여 교육이나 식사를 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하면 적은 공간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그 밖에 음료대나 화장실에 대해 누구나가 모두 중요한 사항이라는 점은 인지하고 있으나 정작 박물관 야외에서 이용하려고 하면 설치되지 않았거나 눈에 잘 띄지 않아 사용하기에 불편했던 경우가 꽤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시설 자체가 노후 되었거나 관리상태가 불결하여 큰 불쾌감을 받았을 줄로 안다. 단체관람 시에 화장실이 크게 모자라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 애를 태웠던 일이 한 두 번이 아니었을 것이다. 특히 여성 화장실은 그 수량을 늘리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 2.5. 박물관 운영준비

### 1) 조직과 인력

박물관 운영 준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직과 예산지원이라고 볼 수 있다. 박물관 운영을 위해서는 박물관의 성격과 규모에 적절한 조직과 인력이 필요하다. 즉 박물관 건립추진단의 규모를 확대하여 향후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전에 타 박물관이나 선진 박물관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한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 져야한다.

대개 박물관에는 관리 파트부분에 행정직을 비롯하여 건축, 기계, 전기, 난

방, 조경 등의 기술직과 전산, 통신, 영양사, 방호, 청경 등의 인력을 둔다. 연구실에는 연구직을 분야별로 두는데, 보존과학, 박물관학, 교육학 등의 전공자들이 분야별로 배치되어 있다. 그밖에 사서, 전산직을 비롯하여 홍보나, 전시 디자인 등의 전문 인력도 확보한다. 이들의 임무와 역할에 대해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앞서 언급한 박물관의 여러 가지 역할과 기능에 비추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업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관련 업무의 근무 경험자를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또 研究職의 자체교육을 위한 세미나, Work-Shop 등을 자주 개최하여 전문성을 제고시킴과 동시에 많은 박물관에 수없는 견학을 실시하여 다각적인 심층적 분석을 통해 건립업무의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이다. 필요하다면 국내·외 선진박물관의 객원연구원이나 인턴으로 참여하여 전문성을 체득시켜 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 2) 예산확보

다음은 박물관의 예산확보 문제이다. 대개 시·도 박물관의 년 간 운영예산은 그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적게는 수 십 억원에서 많게는 수 백 억 원에 이른다.(국고보조금 사업액의 30%, 도비보조금 사업액의 30%이지만 그 상한액이 각각 21억원)

예산의 용도는 각종 사업경비, 인건비, 건물 유지관리비, 물품구입비, 경상적 경비, 유물구입비 등에 쓰인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지역박물관 운영경비 조달은 거의 자치단체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에 비해 외국의 경우는 운영예산의 자체조달(수익사업을 통해 확보)과 기업이나 회원으로부터 기부금을 지원 받아서 운영하고 있다. 이는 그 나라의 박물관에 대한 문화적 수준에서 나타나는 차이이며, 사회 관념에서 오는 차이이다.

더구나 현행 우리나라는 기부금 자체가 인정되지 않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계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나마 세입·세출예산의 차이를 다소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점진적으로 모색해야 될 것이다. 우선

입장료를 올리는 방안, 식당, 스낵코너, Museum-Shop 등의 직영을 통한 수익사업 확대, 각종 보고서나 도록 등 의 책자 판매, 각종 시설물(강당, 식당 등) 임대 및 사용료 징수, 사회교육 및 체험행사에 대한 실비 교육비 징수 등 다각적인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너무 수익사업에 열중하면 박물관 본연의 역할이 떨어지고, 각종 서비스정신도 결여되어 종국에는 주민에게 박물관이 외면당하게 됨으로 적절한 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3. 나가는 말

지금까지 지역박물관의 건립현황과 과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몇 가지로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오늘날의 박물관은 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배우고 즐기는 문화 종합공간으로서의 기능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물관의 건립도 수혜자의 입맛에 맞도록 지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전문가의 식견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장기간에 걸쳐 긴 안목으로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박물관 건립의 외적 요인인 위치 및 기간, 규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례분석을 통해 거시적인 안목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되 박물관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긴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래야만 경쟁력이 제고되어 그 박물관이 갖는 성격이자 브랜드로 창출해가게 될 것이다.

박물관의 하드부분인 건축은 치밀하게 계획하지 않으면 쉽게 고치기 어려운 부분이다. 박물관의 기능에 조화되는 구조, 그리고 각 부분별 체크사항을 세세하게 점검하여 향후 관리, 운영과 유물보존의 효율성과 활용성을 높이며

관람객의 편의성 제공이 뛰어난 시설이 되도록 해야 한다.

박물관의 소프트부분인 연구, 전시, 유물수집·관리,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그 박물관의 성격과 기능에 부합하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연구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의 제 양상을 조사하여 그 문화의 정체성을 규명해 나감으로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밑거름이 되며, 나아가 지역의식의 일체감을 조성하여 지역발전의 구심적 역할이 되도록 분야별 연구가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전시는 잘 조화된 시나리오 구성과 연출의 다양성을 추구해야 하며, 체험전시를 적극 수용하는 것이 좋다. 나아가 아동들에게 다가가기 쉬운 전시의 배려도 잊지 말아야 한다. 유물 수집·관리는 건립계획 단계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야만 차질 없는 건립과 더불어 향후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교육 프로그램은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개발하되 어른에게는 평생교육의장을, 학생들에게는 현장학습의 장을, 아동에게는 체험의 장을, 교사에게는 가르침의 장을 중심으로 계획하는 것이 좋을 듯싶다.

현대 박물관의 새로운 화두는 종합문화공간 기능으로 대변된다. 이는 관람객을 위해 단순한 전시와 교육에서 탈피하여 「5감을 즐기는」 곳으로의 전환, 곧 퓨전문화 공간이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먹을거리, 볼거리, 놀거리, 즐길거리 등을 담을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 개발을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박물관의 운영 준비는 그 박물관의 성격과 규모에 걸 맞는 조직과 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특히 전문 인력의 분야별 확보는 박물관 운영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깊이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한편 연구원은 담당업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선진 박물관의 수없는 현장 조사와 심층 분석으로 개관준비와 운영에 박차를 가하여야 될 것이다. 필요하다면 타 박물관의 연수도 적극 검토해야 할 방안이다.

박물관의 운영예산은 자치단체의 재정 형편에 따라 박물관의 규모에 따라 각기 다르나 계획입안 시에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며, 최소한의 운영예산을 어느 정도 설정하여 사업방향을 원활히 모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오늘

날의 박물관은 대부분 재정적자의 폭을 줄이고자 다양한 수익사업을 실행하는 추세임으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관람객에 대한 문화서비스 정신이 그 바탕이 되어야 함은 깊이 명심해야 될 줄로 안다.

이제껏 언급한 내용은 박물관 건립 시 풀어야할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이다. 그 밖에 세세한 점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 있게 다루어져야 할 과제임으로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겠다. 본 발표자의 능력 부족과 조루한 내용으로 여러분 앞에 나서게 되었음을 매우 부끄럽게 여긴다. 그나마 이 발표를 통하여 선배제현의 따뜻한 가르침의 계기가 되어 지역 박물관 건립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작은 초석이 되기를 자위해 본다.

[주제발표 02]

## 성남의 역사문화 정체성 찾기와 시립박물관

### 1. 시작 이야기

### 2. 시대별 정체성 찾아 보기

2-1. 한성 백제 역사에서 광주권 문화 정체성 찾기

2-2. 고려 역사에서 성남 인물의 정체성 찾기

2-3. 조선 전기(前期)에서 성남의 정체성 찾기

2-4. 조선 후기에서 성남의 정체성 찾기

2-5. 현대 성남 개발 후 성남의 정체성 찾기

### 3. 마무리 이야기

## 한 춘 섭

성남문화원장  
시조시인, 국문학자  
한국폴리텍 성남대학 겸임교수

## 성남의 역사문화 정체성 찾기와 시립박물관

한 춘 섭

성남문화원장  
시조시인, 국문학자  
한국폴리텍 성남대학 겸임교수

### 1. 시작 이야기

오늘의 성남시는 1960년대 초기까지만 해도 현 성남동 일대의 일명, ‘모란 개척단’ 새 농촌 마을 외에는 중앙집권 정치구도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게 없는 경기도 광주군내 4개면 관할의 전통적 마을이었다. 사방을 에워싼 남한산-청계산 계곡 사이의 촌락과 중앙으로 길게 흐르는 탄천(일명, 숲내-숲내)으로 인하여 경치가 아름다웠고, 이곳저곳의 전답이 분포되어 그야말로 한강 동남쪽의 포란지형(抱卵地形) 복된 땅으로 옛 역사와 문화 정체성을 찾아보기 좋은 전통의 농촌이었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 서울특별시 인구 과밀화 해결의 개발 논리에 따라 불과, 3-4년 동안에 ‘경기도광주대단지’의 특수 목적으로 인공도시 성남을 상전벽해(桑田碧海) 같이 수도권 대도시로 변모시켰다. 그러므로 수 백년 정착해 온 농촌주민 생활문화가 전국 각처 이주민(移住民)들과 혼합되어 시민 공감대 형성이 어려웠으며, 이로 인하여 전통문화가 면면히 승계되어 어떤 역사 이야기는 신비감을 더해 주며, 전설로 구전(口傳)되던 광주권 성남출장소 지역의 시정(市政) 전반에 대 혼란스러움을 초래한 개발초기의 사건도 당시, 장본인들 뇌리에 기억으로 남아있을 뿐이다. 분명, 시제(市制) 1973년 7월 1일



이후에 시간은 꽤 많이 과거로 묻혔다. 1세대 교체로 인하여 오늘날의 성남시는 거대한 움직임이 각 분야에서 휘황 찬란히 빛을 뿜고 있다. 1백만 시민들 삶의 터전이 45개 동사무소 부락별로 연립-아파트 단지에 구획되어 있고, 사통팔달의 도로와 높다란 빌딩 숲들로 활기가 넘친다.

하지만, 사람사는 세상에서의 만족은 없다. 30년 전 보다 발전되었으며, 20년 전 보다 살기 편한 활기 찬 도시에서 그래도, 뭔가 더 훌륭한 문화도시로 가꾸면서 끊임없이 미래의 새 판도를 설계하기 위하여 잘잘못의 문제점들을 대화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발표는 야심 찬 문화도시 발전전략을 모색해 갈 <성남시립박물관 건립>을 돕는 이야기로 전통문화 정체성 찾기에 관심을 유발코자 각 시대별 향토 역사를 근거하여 몇 가지 사안을 제안해 보기로 한다.

아울러, 10년 전부터 성남시 지원에 의한 성남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연구팀의 일명, “성남 향토사료관 건립을 위한 연구보고서” 3권 목차를 소개시켜 참고자료에 덧붙여 보려고 한다.

## 2. 시대별 정체성 찾아 보기

이에, 우선하여 전통문화 중 시립박물관 건립.운영에 참고가 될 성남의 역사 이야기와 가설적이긴 하지만 지역 정체성을 실증에 근거하여 찾아 보기로 한다.

지금의 서울특별시 옛 지명 ‘한성(漢城)’의 젓줄 <한강>유역은 성남시를 필두로 옛 광주군(廣州郡) 전체 생활조건에서 한강 남방의 버팀목 역할도 일부 분담해 온 희비(喜悲)를 겪어오게 되는 향토역사가 있어 왔다. 크고 작은 국가홍망의 사변(事變)들이 이 고장 주변에서 빈번하여 각 시대별 실록(實錄)에 의한 향토사 자료를 모아보면 어김없이 역사 속 옛 인물들의 발자취가 스친

적이 많았으며, 국가적 변란이거나 숨겨져 있는 수 백년 대를 이어 살았던 각 성씨의 뿌리에는 전설 같은 충효열사(忠孝烈士)와 효행 선조들의 이야기가 산재해 오고 있는 고장이다.

그러므로 옛 행정구역상 경기도 광주군 관내의 중부-대왕-낙생-돌마 4개 면사무소 고토(故土) 만의 향토사를 중심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인접하고 있는 크고 넓었던 옛 광주(廣州=너른 골)의 역사 이야기는 생략하기로 한다.

## 2-1. 한성 백제 역사에서 광주권 문화 정체성 찾기

기원전 18년, 온조왕(溫祚王)은 부여계로 치밀하고 강력했던 그의 어머니 소서노의 후원아래 현 서울특별시 강동-강남-송파구 중심지역을 포함한 광주-성남-하남시 즉, 위례성 일대에 개국(開國)의 새 깃발을 꽂은 후 한강 벌판과 광주산맥의 남한산 성읍(城邑) 일대에 46년 동안 통치했다. 그가 세웠던 백제야말로 여러 집단들의 연맹체로서 낙랑-말갈족의 여러 차례 침탈에 의해 평화롭지 않은 불안했던 역사가 이어졌음을 추정케 한다.

물론, 성남 이 고장엔 수 만년 전, 원시형태의 선사시대에도 옛 인류가 살았던 지역임이 분명하다. 한강의 중하류 문화권에 드는 성남은 남한산의 자락과 그 사이의 골짜기들로 형성되어 있어 탄천 지류를 따라 구석기 시대부터 인류가 생활기반을 이루었다고 본다. 인근에서 조사된 신석기 빗살무늬토기-지석묘 유물 출토가 입증자료며, 현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백제초기 적석총(백제 고분제), 광주시 산성 안의 승렬전(온조왕 제향), 하남시 일대의 발굴 유적(전시관), 용인시 거꾸집(鎔范) 등 서울지역 한강 남쪽 일대의 선사문화 현장이 될 만하다.

이외 서울 가락-방이-역삼동과 남한산성-청계산 구릉-탄천지역 유적 출토의 가능성이 높지만 무분별했던 도시개발에 의해 시멘트 주거지와 도로 밑으

로 사장되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

성남지역에서의 청동기 시대 유물도 미약한 실정이지만 무문토기-지석묘가 분당 신 도시 개발 당시, 발견·보고 되었으며, 탄천을 따라 상당 규모의 주거지가 연속적으로 배치되었다고 추정된다. 이에 따라 열매나 곡물류의 수확 도구로서 마제석검-반월형 석도-비파형 동검-세형 동검이 가까운 고장에서 발견되어 원시형 문화가 가려져 있다고 판단된다. 우리 성남은 낮은 구릉성 산지가 많은 것이 지형상 특색이어서 점진적 사회변화가 이루어짐도 추측해 본다.

이에 대한 결론으로, 현 한국박물관협회장 배기동 교수는 ‘성남의 선사문화’ <성남의 역사와 문화>(1998년 2.10/성남문화원) 글 속에서;

“선사시대 때부터 한강유역은 복합문화가 형성되는 지역이었으며, 성남지역은 한강 선사문화의 배후지역으로서 이러한 문화가 융합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터전을 제공하였던 지역”

이라는 논표를 낸 적 있다.

백제는 온조왕 13년에 하남 위례성으로 천도 후에 성남지역을 비롯하여 한강하류의 지역특성상 비약적 발전을 할 수 있었고, 도성으로서 문주왕 원년(475년)에 웅진(현 공주)천도를 하기까지 5세기 가까이 한강 중심세력 국가였었다. 이 같은 상고사를 정리해 보면, 인접도시 용인 민속촌 운영은 뜻있는 전통문화 표징 박물관이며, 성남은 탄천가의 고인돌 선사문화에 초점을 두어 볼 만하다.

## 2-2. 고려 역사에서 성남 인물의 정체성 찾기

현 성남시가 신 도시화 이전의 행정구역은 분명, 광주(廣州) 관내 4개의 농

촌마을이었다. 이 ‘광주’라는 지명이 등장하게 된 시대 역시, 고려 태조23년(940) 부터였다. 광주지역은 지리적으로 우리나라 국토 중앙부에 위치하므로써 국가통치 전략상 매우 중요한 요충지였다. 한강에 연접된 남한산(일장산)과 청계산(청룡산)이 제법, 잘 갖추어져 지형상 전국 525개 역(驛) 중에서도 수도 개경과 남부 충청-경상도 각 지방을 연결시키는 지금의 성남지역은 소문난 길목으로 중심축에 꼽혔다.

고려시대의 문화·사상 중에 불교의 위치는 대단히 발달하였다. 왕실·귀족들의 보호아래 불교정책은 이미 태조 왕건시대부터 실시되었다.

그의 <훈요 10조> 제1조;

고려는 부처님의 도움을 받았으므로 불교를 진흥시켜 선종과 교종의 사원을 창건하여야 한다.”

라고 했다.

고려후기에도 불교는 도덕적 합리주의 내지 인간 삶의 현실주의 철학으로 제 모습을 지녀, 활자 인쇄술 발달에 의한 <직지심체요절>(현존 최고 인쇄물)은 대단하였다. 또한, 신종 사대부들이 극진히 숭상하였던 성리학 도덕심은 충성과 효행실천으로서 문화 담당자에 해당되는 文臣귀족 사회 실천문화에 접목되었다. 그 외 <고려대장경>과 <사략>, <삼국사기>, <고려사 열전> 등 간행사업과 각 지역의 수많은 사찰 건립에 따른 공덕신앙은 승려들의 부도·탑비, 각 귀족 문중의 본관을 중시했던 묘지명에서도 찾아지므로써 산 자락마다 수없이 많았던 여러 세거성씨들의 묘소들이 성남지역과 무관하지 않다. 하여, 성남시 봉곡사 창건 역사에 유의하고, 충효 인물들 발자취에 얹힌 효자이야기와 역사와 문학작품에 관심을 둘 만하다.

고려 정치면에서 성남시를 포함한 광주 일대는 왕권체제의 안정을 도모시킨 제4대 광종개혁부터 제11대 문종까지 국왕과 귀족 상호간의 권력조화가 잘 이루어졌으며, 국가가 위태로웠던 몽고군의 강화도 침입 당시, 왕족·권력자

를 위하여 승려·천민층 광주지역 백성들은 몽고 장군 살리타이를 처인성에서 사살시키는 승전보도 남겼다.

지금까지 성남지역과 연고를 맺은 대표적인 고려의 역사인물로 둔촌 이집(1327-1387)과 그의 장남 탄천 이지직(1354-1419), 송산 조 견(1351-1425)을 손꼽게 되며, 신 도시 개발로 인하여 인근 광주시로 묘소를 옮긴 김약시, 이원, 이암과 그의 아들 이강, 이자수 등 꽤 많은 선비들의 발자취를 찾게 된다. 이들은 하나같이 고려멸망을 탄식하며, 사대부로서 자기 지조를 굽히지 않았던 고려 충신으로 하여 성남시 정체성을 충효·청백리들의 위인 발자취에서 지역특성의 추모 보존사업을 검토해도 좋을 것 같다.

### 2-3. 조선 전기(前期)에서 성남의 정체성 찾기

‘조선 시대’란 집터를 마련한 15-19세기의 역사 갈피에서 성남시는 지금의 광주시와 하남시와 서울특별시의 송파-강동-강남구 일대 일명, ‘광주목(廣州牧)’ 관할 아래에 있었다. 그 당시, 광주 땅 남부였던 성남지역의 탄천 옆 들판과 병풍처럼 사방에 둘러쳐진 청계-남한산 두 산 기슭엔 여러 사찰 외 군병들의 전투훈련 장소이거나 왕·귀족들의 매 사냥터로 주목되었던 기록이 자주 나타난다.

이 시기의 성남지역 역사를 서술한 한양대학교 역사학과 이완재 교수는 그의 저서 <한국사에 비친, 성남지역의 역사>(1993년 10.30, 민족문화사) 논저에서;

“따라서 ‘성남지역’의 역사에 있어서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시대라고 하겠다. 그것은 현대 한국사회가 조선시대에서 직결되는 시대라는 점에서도 그렇지만, 실제 최근의 성남지역 내의 먼·동의 명칭과 윤곽이 대체로 조선시대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이 지역 주민들의 생활사를 엿 볼수 있는 방리.관방.참원.장시.인물.공간.전결.공부.호구 등에 관한

자료들이 생생하게 현존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

성남지역은 임진란의 이경류 장수와 병자란 때의 3학사 및 대제학 백헌 이경석 외 예조판서 김상헌, 이조참판 정 온 등의 애국적 인물들을 기억해야 할 고장이다.

한편, 서원과 향교가 광주-하남시 일원에서 특색 있게 관리되었으며, 과거 제도를 통해 이장손-김순성-이극돈-이극기-이극균-이극중-이백-한승형-이세정-이경류-한효순-이지항-이목-이수대-한계희-이세홍-한명옥-이병태-이예손-이육-한술-한회-한지원-이중-김지남-한윤겸-이극규-맹석홍-이윤덕-이상안 등의 술한 역사 인재들이 등용된 자랑스런 고장이기도 하다.

또한 고금동서를 통해 교통로 개발은 인간의 왕래와 물자교역에 없어서 안 될 중요한 동맥이었다. 그러므로 정치와 경제와 군사 등과 밀접한 관련을 맺 으면서 지금의 ‘양재-낙생대로’는 도성으로부터 부산을 잇는 제4대로로서 이 는 곧, 삼남대로였다. 한때, 임금의 강무와 사행로, 선대 묘역참배로 ‘낙생역’ 은 중요한 곳이었고, ‘판교원’과 ‘천림산 봉수’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원형 복원사업이 심혈을 기울여 나갈 큰 문화재 보존사업에 신도시 개발지역이다. 이로써 분당구 소재의 한국토지공사 안의 공공성 토지박물관 운영은 특화된 테마 박물관으로도 평가받을 만하다.

유교의 종주국 명·청에서 조차 흉내 낼 수 없었던 여론에 의한 정치 일면 은 직간신의 “전하, 아니됩니다.”와 뜻 깊은 전국의 유생들 ‘상소문’에서도 조상들의 식견 높은 지도자 통치문화가 공개되어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특히, 전주 리씨 왕가들이 크게 평가받고 있는 1446년 10월의 “훈민정음” 문자 28자 창제 선포는 세계인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우리 언어생활의 금자탑과 같다. 이와 더불어 금속활자에 의한 출판물 간행과 시대 갈피마다 꽃 피운 다채로운 예술 공예품 감각은 양반사회의 자존심을 뛰어 넘어 우리 나라의 자존심이 될 만한 문화와 예술 극치라고 본다.

그러므로 성남에서 조선 전기의 몇몇 대표 인물 남경문(1370~1395)을 필두로 하여 이예장(1406~1456), 한계희(1423~1482), 이극중(1431~1494), 이극돈(1435~1503), 이증(1525~1600), 정윤희(1531~1589), 이상안(1575~1627) 등 이들 몇몇 숨겨진 행적이라도 살펴가며, 당대의 정치.사회를 정의롭게 손질하려 했던 참 모습을 충효와 청백리의 표상으로 후대들에게 계승해 나가야 할 일이다.

하여, 성남시와 연관이 깊은 세거성씨 각 문중들의 대표성을 띤 몇 곳 성남시향토유적 문화재 지정 현장과 소장품 문화재 등을 성남 향토박물관 코너에서 보도록 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고문서와 각 성씨 후손들의 족보, 문화재로 역사적 가치가 큰 묘소 상석의 행적들을 수집.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에, 최근 결성한 “경기 광주문화권협의회”와 “성남 세거성씨 문중협의회” 지역단체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만들어 조선시대 인물연구 자료들을 박물관 자료로 전시-활용해야 나가야 한다.

## 2-4. 조선 후기에서 성남의 정체성 찾기

조선 후기 16-17세기의 사회에서는 임진왜란(1592)과 병자호란(1636) 전쟁을 겪은 백성들 생활이 황폐화 되었다. 참담한 시련을 겪은 가운데 특히, 주자 성리학적 지배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하였으며, 이런 상황하에서 성남지역은 또 다른 군현에 비해 지방 관리의 직책-임무가 수없이 개편을 가져 왔다. 부윤에서 수어부사로 또 다시, 유수 겸 수어부사-부윤 겸 방어사토포사 등의 변동이 있었다. 현 성남시 옛 본토 광주시 일대를 중심으로 한 왕성했던 근기학과(近畿學派) 곧, 실학사상과 천주교 등의 출현, 면리제(面里制) 행정의 발전으로 인하여 향촌사회의 향교-향약도 다른 지역에게는 본보기가 될 수 있었다.

협소한 산촌락의 농지 여건상 주민들의 생활은 여유롭지 못하였을 것이 자

명하지만, 인근의 장시(場市)를 주민들이 최대한 활용하므로써 생활용품 구입과 보부상에 의하여 상거래가 활발하면서도 교통의 간선도로와 지선도는 지극히 불편한 곳이었다. 이 중에도 오늘날의 통신기능을 맡았던 천림산과 남한산 정상의 봉수(烽燧)제도가 천림산 자락에 오랫동안 자리하여 파발제도가 성행되기까지 성남의 옛 모습은 조선 도읍지 한양(漢陽)을 지키는 요새로서 더 확실성이 높았다.

성남지역 조선후기에 귀 기울여 봄 직한 글로, 건국대학교 신안식 교수는 그의 ‘조선후기의 성남지역’ <성남의 역사와 문화유산>(2001년 12.31) 글에서;

“이러한 광주를 배경지역으로 하고 있는 성남지역은 아무래도 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다산 정약용의 근거지인 마재나순암 안정복이 향약을 실시한 경안은 모두 성남지역과 산등성이 하나 넘는 거리밖에 안 되는 곳이었다. 따라서 성남지역은 실학의 정신적 연원을 이루는 뿌리 깊은 도시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실학의 정신이 훗날 개화사상으로, 한말 의병정신으로, 그리고 3.1독립만세운동으로 승화된 민족 자존의식의 배경이었음은 물론이다.”

논표가 적절한 연구성과로 여겨진다.

하므로, 조선후기의 성남지역 역사에서 나라 사랑의 중심인물과 도학자 여류문인 강정일당, 3정승 관록을 지닌 대서예가 금릉 남공철 인물, 민속신앙 및 불교 그리고, 천주교 정착 근거 중심으로 재평가 할 만하며, 이들 외 아직도 자료발굴이 되지 못한 여러 문중의 선대(先代)들 관련 유적지와 발자취에서 성남의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재구성해 나가야 되리라고 본다.

## 2-5. 현대 성남 개발 후 성남의 정체성 찾기

조국 광복 이후, 혼란.무질서했던 한국의 현대사회는 정말로 숨이 찰 만큼 힘겨웠다. 자주력이 부족한 국력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삶은 지독하게 가난했



으며, 한국전쟁과 분단하에서 정치적 부재가 이어지면서 우리의 자본주의 민주국가는 대혼란 양상이었다. 이런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던 1960년대, 성남 신 도시 개발의 당시 사업명칭은 일명, ‘광주군 중부면 성남지구 일단의 주택단지 경영사업’으로 조용한 시골마을이었던 성남에 부동산 투기 돌풍이 세찼던 1960년대 후반기 당시, 이야기는 아픔의 과거로 되뇌여 질 뿐이다.

성남 개발의 초기 신도시를 살핀 향토사학자 한춘섭은 그의 ‘광복 이후 성남의 역사’ <성남의 역사와 문화>(1999.2.10 / 성남문화원 발행) 글에서;

“성남시제가 발효된 1973년 7월 1일, 마침내 법률 제2597호(73.3.12)에 의거하여 광주군 중부면 성남출장소 관할지역은 일약, 성남시로 탈바꿈하였다. 이곳은 광주군 소속에서 단독 성남시로 도시화한 셈이다. 전국 36개시 가운데 11위의 인구를 포용한 도시로 탄생하였다. 국가정권이나 지역여건이나 갈등과 대립의 혼란의 시련은 멈추지 않았으나 계속하여 전입되어 온 시민들로 인하여 성남시는 해가 바뀔에 따라 양적팽창의 도시로 커 나갔다.”

라고 기록돼 있다.

분명, 성남시 도시개발은 특수한 경우로 봐야 하겠다. 들판 길과 하천 뚝이 평지로 바뀌어져 도로와 골목길, 상가, 여관, 음식점들로 변모하여 한 달이 멀다하고 도시모습은 상전벽해로 달라졌다. 산 수풀이 벗겨지고, 20평 미만의 서민주택이 산 언덕 위-아래로 바둑판 주택촌락을 형성하며, 성남시 첫 출발은 ‘기회의 땅’, ‘희망찬 보금자리’의 신도시로 급성장하였던 과거를 우리는 아직도 기억하게 된다.

이처럼 광주군에 속했던 <남한산성의 남쪽 동네>란 마을 이름 ‘성남’ 지명이 확정된 이후, 무수했던 산성의 역사 이야기와 청계산 일대의 종교.전설.인물 이야기들이 우리 성남의 지역성을 형성하는 뿌리가 될 수도 있다. 신 도시개발이 펼쳐지기 전에는 세촌-대왕-낙생-돌마 4개 면사무소 관할에는 낙향한 선비들의 충효 발자취가 근거 있는 전설이었고, 왕족과 권문세가들의 사당과 묘역군이 동네 앞 뒷산에 산재하여 <성남금석문대관> 안에 이들 인물 행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결국, 서울특별시 과밀 인구 분산정책 개간사업지구로 확정.고시된 우리 성남시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새 판도를 짜야 하는 낯선 도시로 출발되었지만, 교육기관이 해마다 늘어났고, 86아시안 게임과 88서울올림픽 대회 이후, 역사의 한 획을 그어 놓은 여러 유형의 스포츠 메달획득 성과가 눈에 띄게 두드러졌다.

성남 제1·2·3공단이 설립되면서 굵직한 대한교과서(주)를 필두로 에이스침대, 삼영전자(주), 샤니 케익 등의 기업들이 들어왔다. 그 외 서울비행장, 성남시 청사 준공, 한국학 중앙연구원과 새마을 중앙연수원 그리고, 경원대학교 개교 외 성남공설운동장, 성남문화원과 예충성남시지회가 인준되기도 하였다. 아울러 수정-중원-분당구가 차례로 개척되면서 지하철 분당-8호선이 개통에 영향을 입어 전입 인구는 급팽창하였고, 현재 100만 시민의 거대도시로 30여 년 사이에 큰 변화를 거듭해 왔다.

하기야, 신도시 역사가 길지 않아 산업구조상 성남시 현대사의 정체성을 논의할 단계는 시기상조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초고속화 사회로 급성장 할 수록 우리 조상들의 전통문화는 더욱 소중한 것이며, 지금까지 팔목할 만큼의 도시발전 축이라 할 수 있는 ‘분당지구 신 도시사업’ 17년 역사 그리고, ‘판교 신 도시사업’에서 경기도 문화재 및 성남시 향토문화재 7 곳을 지정함은 펍 뜻 깊은 사업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들 지정 문화재에 대한 특별 코너를 설치하여 성남 정체성을 강조했으면 좋을 것 같다.

이 외 현대문명의 총아라고 불리는 IT 정보통신 산업체, 지하철 2개 노선과 10여 곳 공공단체 외 130여 개 초·중·고 교육기관 및 시립 도서관, 크고 작은 공원과 대형 백화점의 자랑스런 볼거리들을 선사하여 시민들이 자존심을 갖도록 만든다.

물론, 계획된 분당과 판교 신도시 건설이야말로 우리 성남시 자존심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전국 유일의 국가 공공기관 한국토지공사 외 한국주택공사, 새마을중앙연수원, 한국가스공사, 한국학 중앙연구원, 현대사회연구소, 성남아트센터 등이 곧, 성남 대표기관들이다. 한편, 크고 작은 공원들과 산 풍경,

탄천 옆의 산책로 등 쾌적한 전원도시 면모를 통해 성남 생활문화의 정체성은 현대로 오면서 한둘로 집약되기 힘들다. 더구나, 각 분야 전문가적 수준이 높기 때문에 신도시 정착단계 이후의 ‘성남 얼굴’은 긴 시간 테마를 찾도록 해야 한다.

### 3. 마무리 이야기

박물관은 모든 문화의 정수(精髓)가 수집되어 진열된 곳이며, 보는 이로 하여금 인류가 꾸민 최상의 문화에 대한 깊은 사색을 유발케 하고, 새로운 자기 정체성의 깨달음으로 희망 찬 비전을 암시해 주는 곳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위락적-교육적 기능을 동시에 얻게 되므로 인간 삶의 주체의식을 강화해 나갈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지금까지 시대를 크게 구분하여 성남 정체성을 찾아 보려고 하면서도 두드러진 <우리의 얼굴>은 불투명하게 비춰졌을 뿐이다.

개략적인 마무리를 정리하자면,

첫째, 2-1: 한성 백제의 출토 유물 지식묘(고인돌)와 토기,

\*참조= 잠실 롯데백화점 민속관이나 제주 돌 박물관

둘째, 2-2: 고려의 불교 유물과 사대부의 충효 청백리 실천 사례,

\*참조= 안동 하회박물관이나 강릉 오죽헌 박물관

셋째, 2-3: 조선 전기의 애국 인물과 봉수터 복원 및 세거성씨 유품,

\*참조= 국립 민속박물관이나 단국대학교 석주선 박물관

넷째, 2-4: 조선 후기의 문화재 지정 인물과 민족 자존의식 사례,

\*참조= 경기도 박물관이나 서울 역사박물관

다섯째, 2-5: 현대 성남개발 후 지정문화재 코너 설치와 대표기관들의 자랑스런 볼거리,

\*참조=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이나 한양대학교 박물관

등 여러 박물관을 견학·수집해 가면서 성남시 소재의 각 공공기관에서 기증될 희귀 소장품 자료들을 박물관 일정 공간에 상설 전시토록 준비하였으면 좋겠다.

끝으로 첫 출발단계부터 철차상 엇박자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공개질문을 던지자면, “성남시는 왜, 시립박물관을 건립하려고 하나?” 묻고 싶다. 분명, 답변이야 “우리는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여 100만 시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며, 성남시 위상을 높이고, 문화관광 자원을 만들어 내고자 한다.”라 할 것이다. 과연, 이같은 범 시민의 기대효과가 판교 개발지역 안에서 나타날 수 있겠는가? 심사숙고 하면서 급한 대로 큰 일을 받아 들이게 되면, 반드시 나중에 혼란이 오게 되므로 다시 한 번 냉철한 판단을 촉구하는 생각이다.

얼마전, 국립중앙박물관 김홍남 관장이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박물관은 복합문화 센터의 기능을 담당하는 곳”이라고 하면서 “전국 11개 지방박물관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채 거의 방치상태라고 하였다.” 그리고, 성남문화원에서 지난 9월 11일에 개최하였던 “성남시립 박물관 건립을 준비하는 토론회”에 참석한 경기도립박물관 김성환 학예연구관도 “경기도내 박물관들이 현재, 개점 휴업상태”라고 지적인 현실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성남시립 박물관 건립문제도 “무엇을 담아야 할까?”이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앞서야 하며, 짧은 기간내 서두르지 말고, 일반박물관과 특수박물관의 성격규명 조차 시작부터 구분짓는 어리석음을 삼가하였으면 좋겠다.

가장 이상적 방향에서 ‘느끼고 체험하는 공간의 박물관’을 목표지향점으로 삼아 전시-교양-연구자료 제공처의 <성남다운 성남 박물관> 건립 사업의 초점을 맞춰야 할 일이다. 왜냐하면, 문화시설로 최대의 성공작품을 설계-건축-전시를 꿈꾼다 하더라도 우리가 서울특별시 용산구로 옮겨 놓은 현 국립중앙박물관 수준을 앞지를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성남은 가장 성남적인 것이 가장 한국적 작품이 될 수 있다는 선각자 예술가들의 재발견 논리에 입각하여 가장 성남적인 저, 영장산과 청계

산의 맑고 시원한 공기, 성남시 전체를 길게 관통하며 흐르는 탄천 물빛과 바람소리 앞에 성남 역사와 전설, <성남금석문 대관> 문화유산의 인간 삶의 근원을 온 시민이 자랑거리 삼을 수 있도록 성남 시립 박물관 건립의 문화 자산도 가장 성남적인 것들로 채워지며, 지켜 나가는 성남 사랑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하겠다.

## 테마박물관으로서 지역박물관의 건립과 발전방향

1. 들어가는 말
2. 박물관의 기능 변화
3. 우리나라 국공립박물관 운영현황과 문제점
  - 3-1. 박물관과 테마
  - 3-2. 박물관의 운영
4. 지역문화자원으로서 박물관의 역할
  - 4-1. 지역문화자원의 유형
  - 4-2. 지역문화자원으로서의 박물관의 역할과 지역문화의 발전전략
5. 성남시 박물관의 성격과 방향에 관하여
6. 결론

박 은 실

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교수

# 테마박물관으로서 지역박물관의 건립과 발전방향

박 은 실

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교수

## 1. 들어가는 말

박물관이 변하고 있다. 현대의 박물관은 경영상의 문제와 관람객 감소, 다양화된 문화공간의 출현에 따른 위기를 맞으며 사회적으로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요구받고 있다. 1793년 루브르 박물관이 시민에게 공개된 이후 19세기 말 미국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에 관한 여러 연구들이 박물관의 전문적 기능과 대중적 기능 사이에 절충적 개념을 형성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21세기를 맞아 세계의 박물관들은 유물 수집과 단순 감상의 장소에서 벗어나 대중과 호흡하며, 체험과 학습, 교육과 즐거움이 강조된 에듀테인먼트의 장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1년 바르셀로나 총회에서 개정된 국제박물관협회의 정관(ICOM Statutes)을 보면 “박물관은 공중에게 개방되고 사회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 이바지하는 비영리의 항구적인 기관으로써, 학습과 교육, 위락을 위해서 인간과 인간의 환경에 대한 물질적인 증거를 수집, 보존, 연구, 교류, 전시 한다” 고 박물관의 정의와 역할을 새롭게 규정하였다. ICOM의 정의처럼 박물관은 변화와 개혁의 새로운 측면을 맞으며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이것은 박물관이 지니는 공공성의 가치와 개념이 함께 변하고 있음을 의미

하기도 한다. 지금까지 박물관하면 의례히 고고학적 유물이나 미술품을 수집, 보존, 연구, 전시하는 기능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박물관 테마의 다양성이나 박물관 기능의 대중적인 확장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현대 박물관의 기능은 지역사회와 커뮤니티를 위한 무한가치를 창조할 때 그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심지어 최근 재개관한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에도 대중에게 다가서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관람객 마케팅에 힘쓰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는 박물관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기능의 변화와 더불어 박물관을 둘러싼 운영환경의 변화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본문에서 자세히 논하기로 하겠다.

현재 성남과 경계를 맞대고 있는 수도권의 도시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도시들은 저마다 지역의 특성을 살려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이다. 성남시는 두차례의 급격한 도시팽창과 근대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도시규모와 지역경제는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타 도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정책과 문화도시 논의에서 뒤쳐져 왔다. 또한 도시외형의 급격한 변화와 이주된 시민들의 정주의식은 문화적 동질감이나 지역의 일체감을 반영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성남시는 민선4기를 맞아 ‘수도권 중심도시, 첨단정보도시’ 구축이라는 시정방침 아래 38개 주요 시책사업을 마련하고, 아름다운 환경도시와 향기나는 문화도시를 표방하고 있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을 유치하고 성남문화재단을 설립하였다. 최근에는 수도권 문화허브를 표방하는 성남아트센터가 개관 1년만에 관객 80만 명을 유치하는 대단한 성과를 보여주어 문예회관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1순위가 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다.

반면 인구 98만 명의 우리나라에서 9번째로 큰 대도시 성남에 아직 시립(공립)박물관이 없다. 따라서 최근 몇 년간 시립박물관 건립을 위한 계획과 논의가 활발하게 있어 왔다. 그러나 현재 박물관 건립추진과정에서 몇 가지



쟁점사항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시립박물관을 바라보는 관점과 인식의 문제, 성남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과 지역문화자원의 활용 방향, 박물관 추진과정의 투명성과 공론화작업의 공정성, 박물관 테마에 따른 박물관의 성격 규정, 건립비용과 운영에 관한 문제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되는 내용들이다. 현 시점에서, 성남시는 박물관과 같은 문화기반 시설의 단순한 확충 계획뿐이 아니라 문화시정의 전반적인 방향설정과 비전을 동시에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문화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시정목표를 설정하면 박물관의 성격과 건립방향도 자연스럽게 설정될 것이기 때문이다.<sup>1)</sup>

따라서 현 시점에서 성남시립박물관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문제들을 살펴보고, 성남시가 추구해야 하는 박물관의 방향과 성격을 성남시가 지향하는 문화도시의 비전과 연관해서 제안하고자 한다. 오늘의 논의를 시작으로 다양한 의견수렴의 과정을 통해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합의점을 찾기를 기대한다.

## 2. 박물관의 기능 변화

박물관은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시설이며 공공적인 성격을 담고 있다. 지역사회는 그들 나름대로의 풍토 속에서 독자적이며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박물관이 지역의 문화정체성을 담보하기 위해 가져야하는 기능은 무엇인가. 박물관은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야하며 지역의 고유한 생활양식이나 문화적인 정체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변모하는 시대를 반영, 과학적인 발전과 지역 및 도시의 미래상을 표현하는 수단이며 지역민의 교류와 문화의 다양성을 경험하는 네트워크의 장으로도 활용된다. 사회·교육적 기능과 문화의 활동적인 영역, 정보의 제공과 엔터테인먼트(즐거움)의 기능도 수반하여야 한다. 더불어 시민의 세금으로 고액의 예산을 투입

1) 문화계획(cultural planning)이란 지역의 문화자원, 문화기반시설, 문화프로그램의 상호 연관을 통해 지역과 커뮤니티를 발전시키는 통합적인 전략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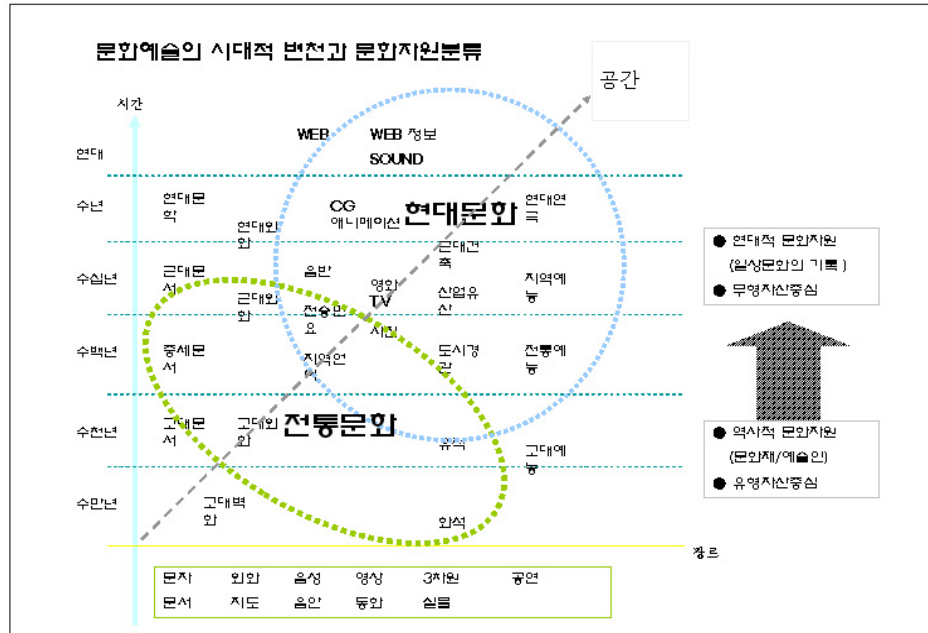
해서 건립되는 만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이바지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박물관의 기능과 역할이 다양해져야 하며, 전문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여 내용에 있어서 질적인 향상을 꾀해야 한다.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권을 고려하여 물리적·심리적으로 접근(Cultural Access)이 용이 해야 한다. 외형 또한 박물관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내·외적 요인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으면 더 좋을 것이다.

따라서 ‘박물관은 지역의 문화적, 사회적, 교육적, 역사적, 공공적, 경제적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하며 주변 문화자원, 문화지역과의 연계성을 가지고 자생적으로 발전해야 한다.’ 또한 지역과 도시의 문화발전을 위해 박물관은 지역문화자원의 부가가치가 파생되는 지역문화전략의 거점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문화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끊임없이 변모한다.

그렇다면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과 지역이 활용가능한 문화자원이란 어떤 것인가? 지역의 문화정체성이란 한 지역의 역사와 향토사를 중심으로 한 과거의 유산도 될 수 있고 도시화과정속에서 파생된 근대문화유산도 될 수 있다.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의 특정 장르나 분야도 될 수 있다. 더불어 지역과 도시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거나 지원하는 새로운 유형의 동시대적인 문화자원 (예를 들어 문화산업)도 지역의 문화정체성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1> 2)

---

2) <그림1>에서는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요소로서 문화예술적인 자원을 테마로 활용한 경우만을 사례로 들었다. 실제로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박물관의 테마는 자연물, 인물, 지형, 풍습, 생물, 광물 등 다양하다.



<그림 1> 문화예술의 시대적 변천과 문화자원에 따른 박물관테마

특권계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고급예술에 대한 소비는 근대 시민혁명을 거쳐 시민사회가 발달하고 민주사회가 성장하면서 예술의 유형과 예술에 대한 향유계층도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문화시설인 박물관의 태동은 기원전 3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박물관이 오늘날처럼 근대적인 기능을 갖추고 시민들에게 널리 공개된 것은 19세기부터이다. 근대 이전의 예술이 귀족의 후원으로 성장했다면 자본주의와 함께 등장한 신흥부르주아와 엘리트계층은 예술과 예술가의 새로운 후원그룹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자본주의의 발달과 산업혁명에 따른 부의 축적, 대중의 출현은 대중문화의 제도적 기반과 민주적 문화의 잠재작인 물질 토대를 구축하는데 결정적으로 공헌했다.

문화의 개념이 협소하고 문화정책의 목적이 예술진흥에 치우쳐 있던 1950년대에서 1960년대를 거쳐 1970년대에는 문화 복지와 문화 분권에 관한 문제가 문화정책의 전략적 목표로 작용하였다. 이후 1980년대 이후에는 문화산업

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문화전략은 도시성장의 수단으로써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문화다양성과 시민참여가 강조되면서 점차 지역사회와 공동체를 강조하는 다양하고 특성화된 지역문화를 발달시키려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한편으로 1980년대에는 문화예술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성이나 투명성 및 책임 등을 문제로 삼기 시작하였다. 문화시설이나 예술단체에 주는 보조금이 납세자의 문화적 향수를 실현하였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비판은 문화학(Cultural Studies)을 포함한 문화연구의 대상과 영역이 단순히 예술장르의 한계를 벗어나 사회, 문화, 환경, 경제 등으로 확산되었고, 도시환경을 포함하는 통합적인 문화계획전략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더불어 문화와 예술은 감상의 대상이나 정신적인 가치제고 차원이 아닌 창조적인 커뮤니티를 주도하고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도심재생의 원동력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 3. 우리나라 국공립박물관 운영현황과 문제점

#### 3.1. 박물관과 테마

최근 중앙정부가 담당해오던 공공의 영역들이 광역과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이관되면서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시대에 돌입해있다. 또한 각 자치단체들마다 지역의 문화와 시민의 복지생활에 관심을 기울이며 다양한 문화 활동과 문화기반시설의 건립에 매년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현재 박물관의 숫자는 선진국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도 2011년까지 인구 9만당 박물관 1관을 목표로 설정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박물관의 부족한 개수 보다 더 큰 문제는 박물관의 획일성과 지역의 편중성에 있다.<sup>3)</sup> 게다가

3) 2005년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되어져 있는 박물관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에 24%, 경기도에 21%, 부산을 포함한 6대 광역시에 12%의 비율로 서울 및 경기를 포함한 대도시에 50%이상의 박물관이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이 종합박물관 형태이거나 민속박물관, 생활사박물관 위주로 되어져 있어 시대적으로 다양한 사회의 요구와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그중에서도 지역박물관들은 차별화되지 않은 소장품 및 유물의 빈약함이나 예산상의 문제로 새로운 프로그램의 기획이 어려워 관람객이 감소하는 등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지역박물관을 건립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건립 그 자체보다 건립후의 운영에 초점을 맞추어서 전략과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실제로 정부에서도 ‘지방문화기반시설의 건립방식’의 문제점 개선방안과 개편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중이다. 기획예산처는 공공도서관·박물관·문예회관 등 ‘지방문화기반시설 건립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하여 종전의 획일적인 행정구역·인구수 기준에 의한 건립 추진방식에서 벗어나 생활권역 중심으로 문화기반시설의 확충목표를 재조정하였다. 여기에는 건립 후 운영계획의 구체성, 인접 지역 내 유사시설의 유무, 시설규모의 적정성 등도 국고지원 여부 결정시 엄격히 심사·반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생활권에 대한 고려 없이 시·군·구(자치구) 등 행정구역이나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획일적인 문화기반시설 건립목표를 설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특히 ‘05년부터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역특성 및 지역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문화기반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에는 국·공립 박물관은 역사를 중심으로 한 종합박물관 건립을 당연하게 여겼으나 시립박물관이 지역의 향토사박물관이어야 함은 관념에 위한 것이지 절대적인 공식은 아니다. 시립이란 박물관을 추진하는 주체의 문제이지 박물관의 테마가 될 수 없다. 최근에 건립 추진되는 국립박물관들은 전문박물관의 형태로 추진되는 경향이 많이 있다. 역사박물관의 형태로 건립되더라도 전시와 소장품의 테마와 주제는 있기 마련이다. 서울역사박물관이나 도쿄에도 박물관 오오사카 시립박물관을 보면 그러하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분류기준에 따르면 국립지방박물관은 모두 중

합박물관이다. 1998년 김해박물관이 설립되면서, 김해박물관은 고고학전문박물관으로 진주박물관은 임진왜란 전문박물관으로 전환되었으나 이는 전시에 해당되는 것이지 소장품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지방박물관은 국가귀속 매장문화재의 보존관리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소장품은 종합적인 성격을 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형성된 박물관의 종합적인 성격은 지역문화를 다각도로 조명할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이 있으나 박물관 특성화에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sup>4)</sup>

국내 박물관에 대한 인식 중 하나는 박물관이 대개 비슷하다는 것이다. 이는 박물관을 찾아가고 싶지 않게 만드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박물관이 대개 비슷하다는 인식은 우리나라 박물관의 상당수를 고고, 미술, 민속박물관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고고, 미술, 민속박물관의 특성화와 함께 전문박물관이 늘어나고 이들의 운영이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sup>5)</sup> 물론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유물이나 소장품이 다량으로 확보될 수 있거나 확보된 경우에는 당연히 종합박물관 형태의 박물관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나라의 지역박물관들이 경우에 예산상의 문제로 다양한 소장품을 보유하는 경우가 드물고 기획의 부재에서 오는 획일화된 전시기법, 비전문화된 프로그램 운영, 전문인력 부재, 소프트웨어를 고려하지 않은 건축물 위주의 공간들, 접근이 어려운 부지선택 등의 여러 가지 이유들이 현재 지역의 박물관들을 박제화 된 공간으로 만들고 있다.

### 3.2. 박물관의 운영

박물관 운영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박물관은 국가정체성과 지역문화를 대변하고 국민의 문화의식과 문화향수를 누리게 하는 대표적인 문화기관으로서 어느 나라나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바탕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4) 국립지방박물관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0

5) 박물관 미술관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2

1980년대 후반부터 박물관이 사회 내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문화시설이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반성의 논리적 근거는 서구 사회에서 정부의 역할을 재조정하는 이념적 기초가 된 신자유주의이며, 이로 인해 박물관에 대한 정부 지원이 실제로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박물관은 스스로 인력감축과 비용절감을 수반하는 경영합리화를 이루지 않을 수 없었으며, 박물관 운영에 있어 재원조성과 마케팅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게 되었다. 오늘날 박물관 경영이 중시되는 것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1980년대까지 약 1800여개의 박물관이 설립·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문화기반 시설이 양적인 포화를 이루고 1990년대 경기불황으로 인한 정부지원이 축소되면서 2001년 4월 1일부터 국립박물관 3곳과 국립미술관 4곳을 포함하여 80여 개의 정부조직을 독립행정법인으로 전환하였다. 박물관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재원조성의 다양성과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편이었다. 기존에 정부지원방식의 안이하게 운영해오던 타성을 벗어나서 부족한 예산을 적극적인 기금모금과 관람객을 위한 마케팅 전략을 쓰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문화공간은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확충되고 있으나 아직 활성화가 미흡하고 재정, 전문인력, 프로그램 등 운영기반도 매우 미약한 상황이다. 전국 문예회관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15%에 불과하며, 평균가동률도 44%에 지나지 않는다. 일반인의 문화기반 시설 이용률도 저하되어, 평균 이용률이 도서관의 경우엔 24%('97)에서 16%('03)로, 박물관의 경우에는 31.8%('97)에서 11.5%('03)로 더욱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sup>6)</sup> 또한 연간이용률이 50% 미만인 박물관은 68%에 <표1> 이른다. 2004년 총지출 대비 박물관의 입장료 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국립중앙박물관 0.3%, 국립민속박물관 31%, 서대문자연사박물관 24%, 경기도립박물관 0.4%, 원주시립박물관 0.8%, 태백석탄박물관 26%,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26%, 목포자연사박물관 20% 수준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금년부터 시범적으로 국·공립 문화시설의 개관시간

6) 문화관광부, 사회서비스 총괄보고서, 2006

을 연장하고 탄력적인 운영으로 관람객을 증대시키기 위한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표1> 지방 문화기반시설별 이용률 분포 (2002년 기준, 개소)

시설 연간이용률	공공도서관	박물관	지방문예회관
100%이상	80	12	11
70%~100%미만	41	3	13
50~70%미만	20	3	23
30~50%미만	32	8	41
30%미만	38	30	25
합 계 <sup>1)</sup>	211	56	113
연간이용률 50% 미만인 문화기반시설 비율	33%	68%	58%

1) 조사에 응답한 시설에 한함 (2003, 기획예산처 자료)

\* 공공도서관 이용률(좌석점유율)=연간이용자수/(좌석수\*개관일수)

\* 박물관 이용률=연간관람객수/인구수

\* 문예회관 이용률(객석점유율)=연간이용자수/(총객석수\*연간개관일수)

현재 우리나라 공립박물관의 재정자립도는 5%이하가 대부분이다. 특히 기초단위의 박물관은 박물관재정의 70%이상이 시설유지비로 충당됨에 따라 유물구입비와 조사연구비 등의 소장품확보와 연구비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소장품 구입은 지속적으로 박물관에 대한 투자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알게 해준다. 전체 공립박물관 중 유물구입비가 책정되지 않은 경우가 45%나 되고, 박물관을 설립하는 초기부터 박물관 유물에 대한 확보와 소장품 수집에 대한 전략은 미비한 실정이다. 공립박물관의 경우에 대개는 기증이나 기탁, 위탁의 형태로 유물을 수집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도 유물소장자가 있거나 유물기증의 의사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한 얘기이다. 따라서 박물관 유물에 대한 사전검토와 체계적인 수집방법이 없다면 박물관의 설립 자체가 힘든 상황이 될 수 있다.

운영예산과 관련한 정부지원도 미비하여 문화기반시설이 완비된 주요 선진국의 경우 정부가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 등에 70%이상을 지출하고 있으나, 우리는 지방문화 지원예산에서 시설비 등 자본 지출이 전체의 95.2%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국고 보조의 4.8%정도만 경상지출로 충당하고 있는 현실



이다. 현행 지방문화진흥 재원 규모로는 부족한 시설확충에 급급한 상황으로 문화예술단체 지원은 물론 건립된 시설마저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문화재원의 대부분(82.2%)을 자치단체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자치단체 예산중 문화관련 예산비율은 2% 수준(선진국 4%)에 머물고 있다. 그중에서 문화재와 관광예산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1% 정도만이 문화예술분야의 프로그램 관련 예산이라 볼 수 있다. (2003년 기준) 7) 이렇게 현재 우리 지역문화 재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인데 문화시설 중에서도 특히 박물관 운영 예산의 부족은 소장품의 지속적인 관리, 전문 인력 활용, 프로그램 기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박물관운영에 어려움을 준다.

## 4. 지역문화자원으로서 박물관의 역할

### 4.1. 지역문화자원의 유형

문화자원의 분류는 실로 다양하고 그 뜻도 해석에 따라 제고의 여지가 많으므로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거나 공통의 기준에 의한 분류체계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나라마다 혹은 지역마다 문화적인 특성과 성향 등은 현저하게 차이가 나며 시대적, 경제적, 역사적, 종교적, 인문학적 배경에 따라 분류의 기준도 달라지기 때문이다.<sup>8)</sup>

7) 문화관광부, 지역문화활성화대책, 2005

8) Munsters (1994)는 기초적인 인프라 스트럭처에 대한 언급은 매력물(Attraction)로 통칭하였다. 이안에는 기념물(종교적 건물, 공공건물, 역사적 주택), 박물관, 루트(Routes), 테마파크 등의 자원영역이 있다. 문화자원의 활동과 관련한 부분을 이벤트라 칭하였는데 문화적, 역사적, 종교적 축제, 비종교적 축제, 전통 축제 그리고 예술 축제 등으로 구분하였다. 한국관광공사(1993)는 유형관광자원(자연적, 문화적, 사회적, 산업적, 관광, 레크레이션)과 무형관광자원(인적, 비인적 자원)으로 구분하였다. ECTARC(1989)의 문화(관광)자원 분류기준은 조금 더 다양하여 고고학적 유산과 유물, 건축물(옛터, 유명한 건물, 도시전체), 예술(조각, 공예품, 미술, 축제, 이벤트), 음악과 춤, 드라마, 언어와 문헌연구, 여행, 이벤트, 종교적 축제, 완전문화와 하위문화 등으로 구분하였다. 포르투갈은 문화자원유형분류(1991)에서 문화유적(기념물, 예술, 기타), 문화 활동(종교, 민속, 예술, 과학, 전통적인 대중 활동), 문화자원(종교, 민속, 쇼)의 세 가지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문화자원을 원천적, 공간적, 활동적으로 분류한 본 발표자의 내용과 외형적인 유사성을 지닌다. 한국의 문화관광지도 작성 연구라는 보고서에서는 문화와 관광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자원을 1

본 발표자는 다양한 개념들을 통합하여 재구성하였는데 중요한 점은 문화자원의 분류기준을 ‘도시’ 유형을 중심으로 구분하였다. 문화자원의 개념은 포괄적이고도 개념적이어서 분류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기에 어려움이 따르며 기준 또한 애매모호 할 수 있다는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원천적, 공간적인 문화자원을 1차적 자원으로 보고, 활동적 자원과 종합적자원은 2차적으로 개발 가능한 자원으로 확대, 발전되는 개념으로 보았다. 도시의 기준은 다니엘 벨과(Daniel Bell)과 어리 (Urry)의 이론에 근거하여 문화중심지와 문화지향지의 두 기준으로 분류하여 문화자원과 도시문화 자원을 연계하였다. <그림2>

1차자원은 그 존재 자체로서 문화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1차적인 자원은 그 종류와 유형을 막론하고 결합과 재발견을 통해 2차 자원으로의 확대 재생산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미술이 발달한 지역에서 비엔날레를 개최하거나 과학과 기술이 발달한 지역에서 테크노파크가 개발되는 경우가 그러하다. 또한 1차적 자원 내에서도 문화자원의 결합에 의한 상승작용이 전개된다. 예를 들어 예술가가 많이 활동하는 지역에 문화시설이 들어서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 문화자원의 확장은 자연발생적이 아닌 전략적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9) 그러나 이러한 자원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유·무형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의 새로운 산업의 체제로 정착되어 지속적이고 내생적으로 발전할 때 생명력과 지역경쟁력을 지니게 된다. 따라서 도시, 지역, 그리고 문화를 통합해서 발전시키기 위한 문화계획(CulturalPlanning)적인 접근방식으로 문화자원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차적 자원, 잠재적인 문화자원을 2차적 자원, 그리고 유형, 무형의 인프라를 간접적인 문화자원이라 분류하여 3차적인 자원이라 칭하였다.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8)

9) 파리 만국박람회(World Expo)때 기념탑이었던 에펠탑은 엑스포가 끝난 후에도 파리의 상징이 되어 한 세기동안 전 세계의 관광객을 파리로 불러 모으게 하였다.

도시	자원 유형	1차적 문화자원		2차적 문화자원	
		인적적	공간적	활동적	종합적
문화 중심지	역사(전통) 도시	인문문화 민속풍습,그전 고고학적 유산 신화,전설	문화재 유적지 건축물 전쟁유적지	엑스포, 문화유산 박물관 비엔날레 대형전시	문화도시 문화관광 테마파크
	문화예술 중심지	종교 예술,예술가 (음악연극,무용, 미술,문학)	전통미술 박물관,미술관 공연장,예술센터 상상물,기념물	문화예술축제 대중문화축제 민속지역축제 스포츠이벤트 엔터테인먼트관련 (영화영상,유희기) 신화전설관련 인물관련 (예술가,철학자,정치 가등) 예술작품관련 (전시,공연,오페라, 뮤지컬,연극)	
문화 지방지	산업 도시	공 업 산 업	건축물 전쟁유적지 박물관,미술관 공연장,예술센터 상상물,기념물	도시공간 공원	테마파크
	포스트 산업도시	과학, 기술 영상, 영화, 경제	도시공간 공원	도시공간 공원	

<그림 2> 문화도시 유형과 문화자원 활용

## 4.2. 지역문화자원으로서의 박물관의 역할과 지역문화의 발전전략

21세기에 들어서 도시의 창조성과 문화적인 경쟁력이 도시와 지역의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움직임이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다. 실제로 창조도시 조성으로 도시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실험과 노력이 진행 중에 있다. 문화적인 창조력은 공간이나 환경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 되며 도시와 환경을 둘러싼 ‘삶의 질’의 확대 재생산을 의미한다. 문화적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인적자원의 균형적인 성장을 가질 때 비로소 지속적이며 경쟁력 있는 문화도시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지역사회의 문화계획은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들이 진행되어야하며, 교육적이거나 문화적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박물관은 지역문화자원으로서 활용되고 지역문화의 발전전략이 된다.

<표 2> 문화전략과 도시발전

시대	정책적 주제	문화의 개념
문화계획적인 접근의 시기 1990년대 초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전략과 도시개발 전략의 적극적인 결합.</li> <li>-문화는 지역개발의 전략과 정책의 최우선적인 전략으로 내세워짐</li> <li>-정부차원의 계획이 아닌 시민들의 정책참여 및 다양한 형태의 거버넌스와 위원회의 상존</li> <li>- 문화다양성과 신개념의 지역분권화, 문화민주주의 등장. 다양한 문화그룹, 소수문화 등의 문화예술그룹들의 참여가 두드러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넓은 의미의 도시의 문화자산이 미학적인 문화적 가치와 상응하며 문화의 개념은 더 이상 완벽함을 지향하지 않으며 오히려 예술과 문화의 가치에 기본적인 가치와 본질에 대한 문제가 정책과 계획에 깊이 관여됨.</li> </ul>
창조적인 도시계획의 시기 1990년대 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90년대 후반 미국, 영국을 비롯하여 창조산업과 창조적인 도시</li> <li>- 창조적 산업은 신경제 체제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자본화된 비즈니스의 한 분야로 대응</li> <li>-대다수의 도시들은 민영화된 지역예술기관이나 문화와 예술을 위한 대행기관을 설립하고 있음.</li> <li>-사용자편의를 위한 대규모 데이터베이스를 기초로 정보화와 네트워킹 전략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와 문화적인 활동은 예술 자체에 머무르지 않음</li> <li>-창조성과 예술적인 재능은 동등한 개념으로 인식하고 대상과 범위에 제한이 파괴되는 추세</li> <li>-창조적인 도시체제 내에서의 창조성의 개념은 혁신, 실험, 새로운 지식과 경험, 새로운 세계에 대한 가치부여를 위한 인간의 모든 노력과 능력으로 폭 넓게 이해됨. (문화와 예술, 산업, 교육 등)</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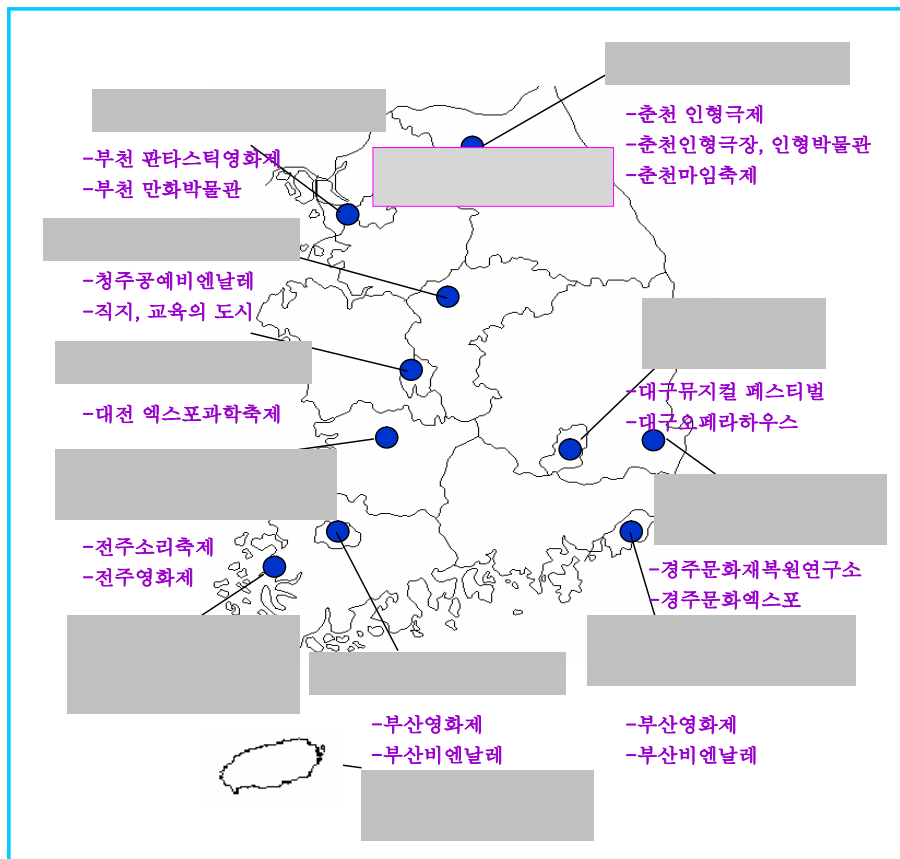
2000년에 수립된 지역문화자원과 연계한 지역문화산업 클러스터 계획을 보면 2001년 지정한 7개 단지를 포함하여 전국 11개 문화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에 있다. <그림3> 박물관 논의에서 벗어날 수도 있으나 논점은 각 도시가 표방하는 문화자원과 콘텐츠에 있다. 1997년 부산영화제와 차별화된 환타스틱 영화제를 시작으로 출판만화의 아카이브를 구축했던 부천은 이제 디지털콘텐츠와 영상산업의 대표적인 도시가 되었다.

최근에는 부천 만화영상진흥원과 디지털아트하이를 설립하여 영상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춘천시는 지난 10여년의 춘천인형극제 축제기간동안 춘천인형극장 설립, 인형박물관과 인형공방설립, 전국인형극단의 지역 유치 및 예술단체의 지역집중화, 재단법인 춘천인형극제 설립 등의 지역 사회에 문화콘텐츠가 축적되는 성과를 이루어내었다.

부천이나 춘천, 부산의 경우와 같이 새로운 형태의 문화자원을 지역의 자원으로 축적한 경우와 달리 전주소리축제, 청주공예비엔날레 등은 지역의 전통문화자원을 현대적으로 활용한 경우이다. 아래와 같이 11개의 도시사례 외에도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도시의 신산업동력으로 발전시킨 경우는 많이 있다. 그 중에서 공연예술, 공연문화와 관련하여 지역정체성을 표방하고 있는 도시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수원(화성연극제), 전주(소리축제), 과천(마당극제),

대구(뮤지컬도시), 대학로(연극), 밀양(연극촌) 등 많은 사례들이 있다. 성남시의 경우에 성남아트센터가 비약적인 발전과 성과를 이루었지만 타 도시들이 공연예술(특히 장르별로)관련해서 구축한 이미지와 콘텐츠의 축적에 비하면 공연예술이 성남의 문화정체성에 얼마나 중요한 비중으로 작용하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부천, 춘천, 부산의 경우나 그 외의 많은 도시들이 전통자원만을 도시의 대표적인 문화자원으로 활용했다면 영화도시 부산, 만화도시 부천, 인형극의 도시 춘천의 사례는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성남시가 포괄적인 의미에서 공연예술박물관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공연예술 도시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과 전략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림 3> 지역문화자원과 연계한 문화산업클러스터



## 5. 성남시 박물관의 성격과 방향에 관하여

성남시는 백제 도읍지의 옛터로 추정되는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지역으로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에 이르기까지 매우 중요한 군사적, 행정적 요충지였다. 그러나 두 차례의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인구 90만의 거대한 도시가 되었다. 1968년부터 진행된 광주대단지 건설은 1969년 5월부터 도시기반시설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주민들의 입주가 시작되면서 내재해 있던 문제점들이 표면화되었다.

*광주대단지가 들어서기 전에는 이곳의 인구는 몇 천명 정도에 불과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60%쯤이 서울에서 들어온 사람들임을 보면, 이곳의 개발이 서울의 골칫거리 한 가지를 해결하는 데에는 도움을 준 셈이다. 그러나 그것은 골칫거리를 해결했다기보다는 이곳에 그대로 옮겨놓은 결과에 지나지 않았다. (뿌리깊은 나무)*

위의 글에서도 알 수 있듯이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까지의 성남지역은 강제이주 당한 도시빈민들과 새로운 서울에 대한 희망을 안고 이주해온 사람들의 애환이 강하게 내재되어 있다. 이후 진행된 도시화와 분당 신도시개발은 성남의 외형은 물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의식까지도 전부 바뀌버릴 정도로 강력한 것이었다. 이렇듯 성남지역은 탄천에 드리워진 전통문화와 현대문화의 만남, 근대화의 응축된 역사, 중앙공원과 남한산성의 역사, 신도시민의 생활과 문화가 공존하는 지역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서로 다른 이질적인 정서를 지닌 신·구도시민의 한지붕 두가족 생활이 공존한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런 배경을 전제로 성남시가 건립하는 시립박물관의 유형과 성격, 건립방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2006년 문화관광부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을 보면 현재 경기도에는 31개의 국공립 박물관·미술관이 운영되고 있으나 성남시에는 국·공립 박물관이 없다. <표3>

따라서 지역의 역사를 보여주고 출토문화재나 소장문화재를 전시할 시립박물관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향후 성남시가 구매, 기증, 기

탁, 소장의 경우를 막론하고 소장품이 많은 경우에 박물관의 설립이 가능하다.

<표3> 경기지역 문화기반 시설 현황 (단위: 명, 개소)

시·군·구	인구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문예 회관	문화 의집
		계	지자체	교육청	사립	계	국·공립	사립	대학		
경 기(31)	10,697,215	80	67	8	5	98	31	56	11	22	18
수 원 시	1,045,587	10	6	1	3	4	1		3	1	
성 남 시	983,075	5	4	1		3		3		1	3
부 천 시	855,359	6	4		2	9	9			1	1
안 양 시	625,350	4	4			1	1			2	
안 산 시	679,011	3	3			2	2			1	
용 인 시	693,660	2	2			15	1	11	3	1	
고 양 시	904,077	5	5			4	1	3		2	
.	.	.	.	.	.	.	.	.	.	.	.

성남시가 보유한 문화재를 살펴보면 한국학중앙연구소가 소장한 고서적을 비롯하여 기념물 보호수, 고가옥, 사대부들의 묘역이 있다. <표4> 10) 성남시립박물관 건립타당성검토 연구에 의하면 「성남시의 역사를 담은 박물관이 성남시내에 없다는 점과 시 재정으로 박물관이 운영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성남시의 역사를 담은 향토사 전시관은 기본 기능으로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다만 「성남이 신도시로 조성되었고 남한산성을 제외하면 유명 역사자원이 별로 없다는 것을 고려할 때 향토사 박물관으로만 운영하는 것은 소장자료와 전시품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역사박물관과 전문박물관의 기능을 결합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전문박물관의 경우에는 기증을 통한 소장품 확보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건립 추진되는 박물관이 있는데 ‘수원역사박물관’과 ‘한국서예사박물관’의 두가지 기능의 박물관을 통합한 ‘수원역사박물관(사운·서예)’이

10) 성남시립박물관 건립 타당성 검토, 2004

그 사례이다. 수원에는 또한 ‘수원화성박물관’을 건립 추진 중에 있다.

<표4> 인근 경쟁지역과의 문화 공간 현황 비교 (단위 : 개소)

지역	문화재				문화공간										
	총계	국가지정문화재	지방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공연시설			전시시설		지역복합문화시설			기타시설		
					공공	민간	영화관	미술관	화랑	시민회관	복지회관	청소년회관	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수원	21	8	12	1	7	3	43	1	6	2	-	1	1	-	1
성남	18	7	9	2	4	-	40	-	-	1	24	1	1	-	-
안양	17	2(3)	13	2	1	1	30	1	1	1	7	3	1	-	-
안산	17	(1)	13	4	4	1	4	1	-	-	5	1	1	-	-
용인	178	138	25	15	1	1	3	4	-	-	1		1	-	-

자료 : 표의 통계수치는 각 시의 통계연보 참고.

그렇다면 성남시립박물관 건립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을 다시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립박물관을 바라보는 관점과 인식에 차이가 있다. 성남시립박물관은 역사박물관이나 향토사료관 형태를 지닌 종합박물관 유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공연예술박물관의 전문박물관 형태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본 발표자는 두 유형 모두 추진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역사박물관은 소장품과 유물에 대한 확보가 전제가 되어야 하며 공연예술박물관은 성남의 전략적인 선택에 의해 추진되는 정책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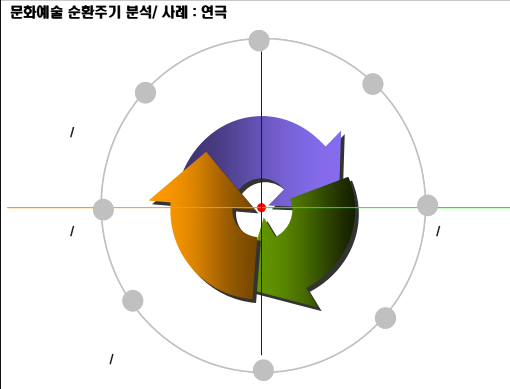
둘째로 성남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에 관한 문제이다. 성남지역의 문화정체성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과거와 근대의 역사 그리고 현대적인 상황이 함께 존재한다. 따라서 어떤 한 측면만이 성남의 문화정체성이라 단언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 예를 들자면 박물관의 주제와 전시스토리라인을 설정함에 있어서 근대도시화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생활사 박물관을 추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셋째는 박물관 추진과정의 투명성과 공론화과정에 관한 문제이다. 시민공청회나 심포지엄 등의 공론화 과정을 많이 거치기를 바란다. 특히 일반시민들



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시민의식이나 여론조사 등을 하기를 제안한다.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 정책과정에 반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건립비용과 부지에 관한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된 것 같다. 그러나 박물관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건립예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운영예산의 확보방안이다. 실제로 건립만 해놓고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지 못해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박물관의 사례가 너무 많다. 또한 운영형태와 운영인력의 문제도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이다. 직영, 위탁운영, 책임운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박물관 기능의 다각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박물관과 지역사회 발전, 박물관과 지역문화자원의 연계, 박물관을 통한 지역시민의 문화향수와 문화권에 기여하는 다각적인 기능과 역할에 맞는 박물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성남시가 요구하는 미래의 문화환경은 공연예술이라는 문화자원을 중심으로 문화시설, 문화프로그램, 인력양성, 지원체계의 구축 및 체계적인 기구의 설립, 지역문화산업으로 발전되는 문화인프라 구축이 순환적이고 통합적 <표5>으로 이루어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 <표 5> 문화계획 전략

<p>▶통합적인 계획 : 문화계획 전략</p> <p>-Definition of culturalplanning:</p> <p>" 도시, 지역, 그리고 문화를 통합해서 발전시키기 위한 문화자원 전략을 의미"</p> <p>MA in European CulturalPlanning, De MonfortUniversityin Leicester</p> <p>-서로 다른 차원의 아젠다 연결 : 문화, 사회, 환경, 기술 등등</p> <p>-네트워크</p> <p>-문화소비의 새로운 패턴 창조</p> <p>-문화와 기술의 융합 (디지털 컨버전스)</p> <p>-정보의 공유와 유연한 흐름</p> <p>-대화와 타협</p> <p>-의견결정의 혁신적인 방법</p> <p>-세심하고 정확한 모니터링과 실행</p> <p>-지속 가능한 발전</p> <p>-실현 가능한 계획</p> <p>-새로운 유형의 개발</p> <p>-문화계획/ 통합계획</p> <p>▶ Be integrated and holistic</p> <p>▶ Think about the whole system</p> <p>▶ Build partnerships</p>	<p>문화예술 순환주기 분석/ 사례 : 연극</p> 
--	--

## 6. 결 론

성남시립박물관의 추진방향과 테마는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진다. 첫째 성남시의 역사와 공연예술이 결합하는 경우이다. 이것은 성남도시박물관으로 추진하여 성남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스토리텔링에 위한 전시기법을 활용하여 각각의 조닝을 도시생활의 단면으로 연출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다음으로는 역사와 공연예술이라는 주제를 물리적으로 결합하는 방법이다. 이 유형은 공간적으로는 공존하지만 내용적으로는 별개인 2가지 성격의 박물관

이 공존하는 경우이다. 끝으로 공연예술전문박물관을 추진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도 공연예술의 테마를 어떻게 설정할지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경기도에는 의정부 국제음악극 축제, 남양주 세계야외공연 축제,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과천 한마당 축제, 수원 화성연극제, 파주 세계평화축전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예술축제가 있고 성남시에는 성남문화예술제, 성남아트센터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 전역을 연계하고 서울의 대학로를 잇는 공연문화의 허브로 자리를 잡을 수도 있을 것이다.

지난 1996년 수원화성 축성 20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시작된 수원화성연극제는 축제자체의 완성도와 전문적인 공연의 체계를 이룬 것은 성공한 축제로 평가되어지고 있다. 반면에 축제개최로 인해 파생되는 지역사회와의 관계와 지역발전의 측면에서는 그리 큰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례로 축제의 발전과는 무관하게 수원지역에는 현재 연극공연을 할 수 있는 소극장이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연극창작에 필요한 예술가지원, 연습실 등의 시설지원에 관한 제도도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지역사회에 뿌리내려져야 할 축제의 성과가 축적되지 못하고 문화예술의 창작, 유통, 소비의 순환관계를 연결하는 문화예술생태계 시스템이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박물관은 시대의 흐름과 요구에 의하여 다양한 역할과 기능들로 변모하고 있다. 서울에 비해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지역의 박물관들은 더욱 그렇다. 성남시가 박물관건립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고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 과정에 있다. 박물관의 성격과 유형, 방향은 추진주체와 방식에 따라 매우 달라질 수 있다. 역사박물관이거나 또는 공연예술전문박물관으로 추진되거나 혹은 두 가지 유형의 복합된 형태로 추진이 된다고 하여도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박물관의 가치를 최적화시키고, 박물관을 추진함에 있어 다양한 태도와 견해를 공공의 목적에 맞게 부합시키고, 생산적인 파트너 쉽을 구축하여 지역사회를 결합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박물관이 활성화를 꾀하려면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여 박물관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 문화지역으로 발전해야

한다. 박물관이 활동을 하고 살아있다면 인근의 환경은 문화적으로 변모하고 자생력을 가지며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참고자료]

## 2006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2006.7. 문화관광부 지역문화과)

## 2006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2006.7. 문화관광부 지역문화과)

시·도	시군구	구분1	구분2	시 설 명	개 관	인력	규모		연 관 랍
							m <sup>2</sup>	평	
서울	용산구	국립	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1996년 12월	205(91)	32,706	9,894	1,980,562
	종로구	국립	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1993년 2월	127(36)	16,502	4,992	2,932,214
	종로구	국립	박물관	국립서울과학관	1990년 4월	28	4,177	1,264	1,109,252
	종로구	국립	박물관	국립채신기념관	1972년 12월	7(1)	392	119	16,597
	종로구	국립	박물관	경찰박물관	1995년 11월	1	675	204	128,063
	중구	국립	박물관	철도박물관	1994년	15(4)	235	71	13,450
	중구	국립	박물관	우정박물관	1985년 5월	7(1)	1,623	491	64,226
	중구	사립	박물관	화폐금융박물관	2001년 6월	12(1)	2,757	834	86,106
	중구	국립	전시관	궁중유물전시관	1992년 12월	37(1)	3,303	999	1,162,234
	노원구	국립	박물관	육군박물관	1983년 5월	10(6)	5,772	1,746	82,923
	서초구	국립	박물관	외교박물관	1993년 2월				
	강남구	국립	박물관	관세박물관	2000년 8월	3	774	234	14,379
	종로구	공립	박물관	서울교육사료관	1995년 6월	4(1)	1,249	378	36,744
	종로구	공립	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2002년 5월	88(14)	20,166	6,100	359,843
	서대문	공립	박물관	서대문자연사박물관	2003년 7월	17(5)	6,949	2,102	280,257
	종로구	사립	박물관	영인문학관	2001년 4월	5	239	72	4,000
	영등포구	사립	박물관	한국잡지박물관	1992년 12월	2	275	83	7,000
	종로구	사립	박물관	신문박물관	2000년 12월	7	819	248	15,000
	종로구	사립	박물관	한국불교미술박물관	1993년 7월	7(2)	1,381	418	10,000
	종로구	사립	박물관	의학박물관	1999년 4월	4(1)	249	75	26,000
	종로구	사립	박물관	짚풀생활사박물관	1993년 3월	5	685	207	14,500
	종로구	사립	박물관	티베트박물관	2001년 12월	1	200	61	25,000
	종로구	사립	박물관	한상수자수박물관	2005년 9월	6(1)	155	47	650
	종로구	사립	박물관	동아일보 부설 신문박물관	2000년 12월	8(3)	1,036	313	37,096
	종로구	사립	박물관	떡·부엌·살림박물관	2002년 1월	5(1)	603	182	5,000
	종로구	사립	박물관	가회박물관	2002년 10월	6(1)	267	81	2,00
	중구	사립	박물관	한국현대의상박물관			130	39	

	중구	사립	박물관	한국금융사박물관	1997년 3월	5	1,027	311	24,694
	중구	사립	박물관	초전섬유켄트박물관	1998년 10월	6(2)	547	165	19,651
	강남구	사립	박물관	서울디자인박물관	1994년 1월	2	575	174	
	강남구	사립	박물관	한국자수박물관	1969년	5	210	64	5,000
	강남구	사립	박물관	풀무원 김치박물관	1987년 5월	5(1)	567	172	72,277
	강남구	사립	기념관	도산 안창호기념관	1998년 11월	4	370	112	70,415
	송파구	사립	기념관	서울올림픽기념관	2001년 5월	14	4,222	1,277	85,500
	송파구	사립	박물관	롯데월드민속박물관	1989년 1월	7(1)	5,921	1,791	323,213
	송파구	사립	박물관	삼성어린이박물관	1995년 5월	26(1)	3,101	938	340,364
	서초구	사립	박물관	진기박물관	2001년 8월	4(1)	1,211	366	24,899
	서초구	사립	전시관	한국사진전시관	1998년 9월	2	1,198	362	5,250
	성북구	사립	박물관	한국가구박물관		5	898	272	
	강서구	공립	박물관	허준박물관	2005년 3월	11(1)	1,691	512	118,985
	강동구	사립	박물관	농업박물관	1987년 11월	11(1)	2,709	819	101,754
	종로구	사립	박물관	삼성출판박물관	1990년 6월	4(1)	764	231	2000
	용산구	사립	박물관	지구촌민속박물관	1997년 12월	12(6)	538	163	405,000
	용산구	사립	박물관	화정박물관	1999년 9월	8(4)	581	176	
	용산구	사립	기념관	백범기념관	2002년 10월	23(1)	8,797	2,661	24,020
	용산구	공립	기념관	전쟁기념관	1994년 6월	77(9)	28,819	8,718	738,310
	서대문	사립	전시관	울트라공구전시관	2001년 11월	2(1)	119	36	3,000
	도봉구	사립	박물관	옹기민속박물관	1991년 4월	5(1)	797	241	7,500
	관악구	사립	박물관	호림박물관	1982년 10월	20(2)	4,650	1,407	28,352
	관악구	사립	박물관	한국카메라박물관	2000년 10월	4(1)	378	114	3,400
	구로구	사립	박물관	평강성서유물 박물관	1998년 11월	4(1)	417	126	1,800
	서대문	대학	박물관	이화여대박물관	1935년	24(6)	2,854	863	10,000
	서대문	대학	박물관	이화여대 자연사박물관	1969년 11월	8(2)	1,523	461	59,053
	서대문	대학	박물관	연세대박물관	1924년 3월	6(1)	9,908	2,997	6,724
	성동구	대학	박물관	한양대박물관	2003년 5월	9(2)	4,437	1,342	26,000
	용산구	대학	박물관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	1967년 11월	10(2)	1,678	508	2,300
	용산구	대학	박물관	숙명여대 박물관	1971년 6월	6(5)	1,560	472	30,000
	동대문	대학	박물관	경희대중앙박물관	1955년 10월	9(4)	1,832	554	2,500
	동대문	대학	박물관	서울시립대박물관	1984년 9월	4	522	158	10,950
	도봉구	대학	박물관	덕성여대박물관	1971년 5월	6(1)	880	266	5,000
	광진구	대학	박물관	세종대박물관	1973년 5월	9(3)	4,812	1,456	

■ 시립박물관 건립방향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

	광진구	대학	박물관	건국대박물관	1963년 3월	6(1)	1,025	310	3,238
	중구	대학	박물관	동국대박물관	1963년 9월	5(3)	876	265	3,400
	성북구	대학	박물관	고려대박물관	1934년	7(1)	4,284	1,296	
	성북구	대학	박물관	동덕여대 여성학박물관	1977년 5월	3	1,056	319	700
	동대문	대학	박물관	경희대 자연사박물관	1978년 6월	7(2)	1,680	508	18,000
	서대문	공립	역사관	서대문형무소역사관	1998년 11월	15(1)	263	80	434,691
	성북구	대학	박물관	국민대박물관	1973년 7월	7(3)	1,308	396	9,700
	성북구	대학	박물관	성신여대박물관	1966년 9월	4(2)	606	183	3,358
	동작구	대학	박물관	송실대 한국기독교박물관	1967년 10월	9	3,162	957	
	관악구	대학	박물관	서울대 박물관	1946년 10월	5(2)	5,346	1,617	61,176
	마포구	대학	박물관	서강대박물관	1974년 2월	2	275	83	63,848
	마포구	대학	박물관	홍익대박물관	1967년 2월	3	2,679	810	724
	종로구	대학	박물관	카톨릭대전례박물관	1989년 5월	2	1,129	342	2,60
	종로구	대학	박물관	상명대박물관	1995년 7월	5(2)	238	72	3,000
	종로구	대학	박물관	성균관대박물관	1964년 6월	8(3)	1,440	436	5,000
	영등포	사립	박물관	한국잡지박물관	2002년 3월	2	535	162	7,000
	중구	사립	박물관	우리은행 은행사박물관	2004년 7월	8(1)	1,347	407	17,954
	종로구	사립	박물관	첫대박물관	2003년 11월	7(1)	401	121	9,000
	종로구	사립	박물관	세계장신구박물관	2003년 5월	5(1)	178	54	6,010
	관악구	사립	박물관	성보문화재단 호림박물관	1982년 10월	20(2)	5,177	1,566	29,148
	강남구	사립	박물관	코리아나 화장박물관	2003년 11월	12(2)	937	283	5,481
	강남구	사립	박물관	관세박물관	1987년 5월	5(1)	553	167	64,100
	중구	사립	박물관	살트르상비오르스나화역사박물관	2004년 6월	3(1)	573	173	3,000
	강남구	사립	박물관	경운박물관	2003년 4월	8(3)	116	35	
	용산구	대학	박물관	숙명여대 정영양지수박물관	2004년 5월	6(5)	1,289	390	45,000
부산	남구	공립	박물관	부산광역시립박물관	1978년 7월	53(6)	9,834	2,975	477,576
	동래구	공립	박물관	북천박물관	1996년 10월	29(3)	7,084	2,143	113,093
	중구	공립	박물관	부산근대역사관	2003년 7월	13(1)	2,196	664	103,253
	동래구	공립	박물관	해양자연사박물관	1994년 6월	23(2)	6,821	2,063	130,000
	남구	대학	박물관	경성대박물관	1972년 3월	4(1)	779	236	41,850
	남구	대학	박물관	부경대박물관	1984년 5월	4(1)	954	289	8,000
	서구	대학	박물관	동아대박물관	1959년 11월	20(3)	1,433	433	7,799
	부산진구	대학	박물관	동의대박물관	1986년 5월	7(1)	1,920	581	970
	부산진구	대학	박물관	부산여대박물관	1987년 7월	4	2,359	714	1,100



	북구	대학	박물관	부산정보대 민속박물관	1993년 11월	2	1,071	324	80,000
	금정구	대학	박물관	부산대박물관	1964년 5월	12(6)	1,162	352	12,010
	사상구	대학	박물관	신라대박물관	1984년 12월	3(1)	342	103	1,600
	영도구	대학	박물관	해양대박물관	1992년 3월	4	675	204	10,000
대구	수성구	국립	박물관	국립 대구박물관	1994년 12월	40(5)	10,030	3,034	392,656
	중구	사립	박물관	한국무속박물관	1990년 3월	3(2)	288	87	휴관중
	동구	사립	기념관	송광대기념관	2003년 10월	6(2)	495	150	2,000
	달서구	대학	박물관	계명대 행소박물관	1978년 5월	9(5)	3,566	1,079	38,311
	남구	대학	박물관	대구교육대 박물관	1979년 3월	1(1)	454	137	9,890
	북구	대학	박물관	경북대박물관	1959년 5월	8(5)	5,488	1,660	20,316
	동구	사립	박물관	자연염색박물관	2005년 6월	6(2)	603	182	383
인천	연수구	공립	박물관	인천광역시립박물관	1946년 4월	14(4)	2,692	814	휴관
	연수구	사립	박물관	가천박물관	1995년 10월	3(1)	1,082	327	12,443
	남구	대학	박물관	인하대박물관	1976년 3월	9(1)	331	100	250
광주	북구	국립	박물관	국립 광주박물관	1978년 12월	64(10)	14,058	4,253	438,574
	북구	공립	박물관	광주시립민속박물관	1987년 11월	32(8)	6,459	1,954	349,875
	서구	공립	박물관	서구빛고을국악전수관	2002년 10월	5(1)	2,000	605	5,200
	북구	대학	박물관	전남대 박물관	1957년 4월	6(2)	2,194	664	12,000
	북구	대학	자료관	광주교육대 교육자료관	1997년 3월	2	587	178	650
	동구	대학	박물관	조선대박물관	1992년 5월	5	483	146	800
대전	유성구	국립	과학관	국립 중앙과학관	1990년 10월	155(21)	13,881	4,199	762,710
	동구	공립	박물관	한밭교육박물관	1992년 7월	11(1)	2,117	640	80,619
	중구	공립	사료관	대전광역시향토사료관	1991년 12월	3(2)	2,287	692	80,842
	유성구	공립	박물관	한국지질자연연구원 지질박물관	2001년 11월	6	2,041	617	67,453
	유성구	사립	박물관	한국조폐공사 화폐박물관	1988년 6월	5(1)	2,326	704	159,918
	중구	사립	박물관	충남전기통신박물관	1996년 3월	0	510	154	100
	서구	사립	박물관	동산도기박물관	1997년 3월	4(2)	383	116	3,500
	유성구	대학	박물관	충남대박물관	1968년 4월	5	4,074	1,232	240
	동구	대학	박물관	대전보건대박물관	1922년 5월	1(1)	635	192	304
	서구	대학	박물관	배재대박물관	1988년 3월	2	140	42	900
	대덕구	대학	박물관	한남대자연사박물관	1984년 4월	5(4)	1,018	308	12,888
	대덕구	대학	박물관	한남대중앙박물관	1982년 3월	3(1)	1,469	444	15,302
	동구	대학	박물관	대전대박물관	1984년 10월	2(1)	1,746	528	8,627

■ 시립박물관 건립방향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

울산	남구	대학	박물관	울산대박물관	1996년 1월	5	954	289	5,800
경기	수원시	대학	박물관	경기대박물관	1983년 10월	7	677	205	100
	수원시	대학	박물관	동남대박물관	1996년 5월	2		0	
	수원시	대학	박물관	아주대박물관	1993년 11월	3(1)	330	100	1,000
	수원시	공립	전시관	수원미술전시관	1999년 12월	3(1)	1,364	413	20,230
	성남시	사립	박물관	토지박물관	1997년 7월	15(6)	5,585	1,689	39,525
	성남시	사립	박물관	분당자연박물관	2003년 5월	10(2)	2,274	688	87,350
	성남시	사립	박물관	주택도시박물관	2005년 12월	6(1)	1,025	310	18,422
	부천시	공립	박물관	부천향토사료관	1988년 1월		217	66	
	부천시	공립	박물관	부천자연생태박물관	2000년 9월	6(1)	803	243	135,723
	부천시	공립	박물관	한국만화박물관	2001년 10월	7	1,851	560	129,507
	부천시	공립	박물관	물 박물관	2001년 7월	1	600	182	
	부천시	공립	박물관	유럽자기박물관	2003년 5월	4	516	156	13,548
	부천시	공립	박물관	부천 활박물관	2004년 12월	5	531	161	13,622
	부천시	공립	박물관	부천 교육박물관	2004년 4월	4(1)	677	205	25,354
	부천시	공립	박물관	부천 수석박물관	2004년 10월	4(1)	674	204	8,660
	부천시	공립	전시관	로보파크전시관	2006년 1월			0	
	안양시	공립	역사관	안양역사관	2004년 9월	2(1)	1,573	476	54,005
	안산시	공립	전시관	단원전시관	1999년 10월	2			
	안산시	공립	기념관	성호기념관	2002년 5월	4	818	247	38,409
	용인시	대학	박물관	명지대박물관	1979년 3월	5(3)	1,912	578	600
	용인시	사립	박물관	디아모레뮤지엄	1979년 12월	6(3)	1,346	407	27,918
	용인시	사립	박물관	신세계 한국상업사박물관	1995년 5월	2(1)	1,468	444	10,000
	용인시	공립	박물관	경기도박물관	1996년 6월	56(22)	10,216	3,090	653,151
	용인시	사립	박물관	한국민속촌박물관	1996년 12월	15(5)	1,883	570	77,283
	용인시	사립	박물관	한국등잔박물관	1997년 9월	6(3)	745	225	16,334
	용인시	사립	박물관	삼성교통박물관	1998년 5월	29(1)	13,731	4,154	198,744
	용인시	사립	미술관	마가미술관	1998년 9월	2(1)	1,227	371	1,100
	용인시	사립	박물관	둥지박물관	1999년 12월	7(1)	1,584	479	20,000
	용인시	사립	박물관	세종옛돌박물관	2000년 7월	6	13,405	4,055	31,603
	용인시	대학	박물관	용인대박물관	2003년 6월	6(4)	1,159	351	450
	용인시	대학	박물관	경희대 혜정박물관	2004년 9월	7(5)	2,627	795	2,500
	광명시	공립	기념관	오리 이원익기념관	2001년 6월	2		0	6,688
	광명시	사립	박물관	충현박물관	2003년 10월	6(1)	1,368	414	3,395

광명시	사립	박물관	나비아놀자박물관	2005년 10월	3(1)	423	128	1,500
시흥시	공립	전시관	시흥역사자료전시관	2003년 5월	2	363	110	6,529
시흥시	사립	박물관	창조자연사박물관	2005년 7월	3(1)	1,370	414	15,094
화성시	대학	박물관	수원대박물관	1987년 9월	6(1)	3,132	947	1,000
화성시	대학	박물관	협성대 성서고고학박물관	1997년 8월	2(1)	427	129	1,500
화성시	사립	박물관	용주사 효행박물관				0	
이천시	사립	박물관	한국기독교 역사박물관	2001년 11월	3	470	142	2,500
이천시	공립	박물관	이천시립박물관	2002년 5월	9(1)	1,131	342	32,816
이천시	대학	박물관	청강대 만화역사박물관	2002년 12월	5	767	232	14,000
김포시	사립	박물관	덕포진 교육박물관	1996년 6월	6(1)	1,243	376	5,200
광주시	사립	기념관	만해기념관	1998년 5월	4(1)	523	158	30,000
광주시	사립	역사관	일본군 위안부역사관	1998년 8월	4	444	134	10,000
광주시	사립	박물관	조선관요박물관	2001년 8월	22(3)	22,474	6,798	38,823
광주시	사립	박물관	사람 박물관 얼굴	2004년 5월	4(2)	633	191	2,500
안성시	대학	박물관	중앙대박물관	1954년 6월	1	906	274	713
안성시	공립	기념관	안성3·1운동기념관	2001년 11월	2	1,029	311	48,631
안성시	공립	박물관	안성맞춤박물관	2002년 8월	2(1)	1,158	350	23,324
하남시	공립	박물관	하남역사박물관	2004년 6월	4(3)	367	111	12,089
의왕시	사립	박물관	철도박물관	1988년 1월	16	3,023	914	6,302
오산시	대학	박물관	한신대박물관	1991년 3월	14(1)	701	212	600
여주군	사립	박물관	목아 불교박물관	1990년 4월	13(2)	5,496	1,663	129,542
여주군	공립	사료관	여주군향토사료관	1997년 5월	2(1)	588	178	15,240
여주시	공립	기념관	명성황후기념관	2000년 4월	8	431	130	182,798
여주군	사립	유물관	한얼 고문서유물관	2000년 10월	3(1)	627	190	15,000
여주군	사립	유물관	한얼 전적유물관	2000년 10월	3(1)	528	160	15,000
여주군	사립	문화관	한얼 과학문화관	2000년 10월	3(2)	627	190	15,000
여주군	사립	박물관	여성생활사박물관	2001년 6월	6	1,022	309	107,750
여주군	사립	유물관	한얼 카메라유물관	2002년 3월	3(2)	495	150	15,000
여주군	사립	박물관	한얼 의학유물관	2002년 3월	3(2)	495	150	15,000
여주군	사립	유물관	한얼 산업디자인유물관	2002년 3월	3(2)	627	190	15,000
여주군	공립	전시관	세계생활도서관	2002년 3월	2	1,682	509	
양평군	공립	기념관	화서기념관	2002년 9월	1	92	28	
과천시	사립	박물관	마사박물관	1988년 9월	2(1)	501	152	58,404
고양시	사립	박물관	충남미문화원 병설 박물관	1994년 10월	10	15,189	4,595	57,000

■ 시립박물관 건립방향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

	고양시	공립	전시관	고양민속전시관	1995년 4월	4	288	87	46,865
	남양주시	공립	기념관	다산기념관	1989년 1월	4	517	156	155,000
	남양주시	사립	박물관	무의자박물관	2000년 2월	2(1)	875	265	
	남양주시	사립	박물관	자연사박물관 우석현	2003년 12월	5(1)	2,965	897	120,000
	남양주시	사립	박물관	주필 거미박물관	2004년 5월	4	5,674	1,716	4,038
	파주시	사립	사료관	두루뎌박물관	1998년 11월	4(1)	547	165	11,744
	파주시	사립	전시관	영집궁시전시관	2001년 5월	3	141	43	8,320
	포천시	국립	박물관	산림박물관	1987년 4월	6(1)	3,640	1,101	323,295
	양주시	사립	박물관	조명박물관	2004년 9월	6(3)	1,120	339	15,600
	동두천시	공립	박물관	자유수호평화박물관	2002년 5월	4	969	293	36,866
	연천군	공립	사료관	연천군향토사료관	2002년 12월	1	204	62	
	연천군	공립	사료관	연천군향토사료관	2002년 12월	1	204	62	
강원	춘천시	국립	박물관	국립 춘천박물관	2002년 10월	52(7)	10,117	3,060	151,484
	원주시	공립	박물관	원주시립박물관	2000년 11월	12(2)	3,394	1,027	22,584
	강릉시	공립	박물관	오죽헌시립박물관	1992년 11월	23(5)	2,641	799	725,754
	강릉시	공립	박물관	대관령박물관	1993년 5월	6	937	283	61,047
	삼척시	공립	박물관	삼척시립박물관	2000년 3월	8(1)	1,462	442	42,158
	태백시	공립	박물관	태백석탄박물관	1997년 5월	13(2)	6,850	2,072	338,040
	인제군	공립	박물관	인제산촌민속박물관	2003년 10월	6(1)	1,743	527	18,034
	양구군	공립	박물관	양구전사박물관	1997년 10월	4(1)	654	198	12,842
	춘천시	대학	박물관	치악민속박물관	1998년 5월	5(2)	771	233	1,600
	평창군	사립	박물관	월정사 정보박물관	1993년 5월	5(1)	687	208	32,923
	영월군	사립	박물관	영월 책박물관	1999년 4월	3(1)	294	89	20,000
	강릉시	사립	박물관	참소리 축음기 에디슨박물관	1992년 11월	11	1,510	457	172,000
	고성군	사립	박물관	한국스키박물관	1990년 12월	3	1,069	323	1,734
	강릉시	대학	박물관	관동대박물관	1976년 4월	3(1)	2,787	843	5,000
	춘천시	대학	박물관	한림대박물관	1988년 5월	5(2)	771	233	1,600
	강릉시	대학	박물관	강릉대박물관	1979년 3월	3(1)	739	224	396,867
	춘천시	대학	박물관	강원대박물관	1979년 3월	4(1)	2,433	736	110,000
충북	청주시	국립	박물관	국립 청주박물관	1987년 10월	34(4)	10,478	3,170	190,672
	청주시	공립	박물관	청주고인쇄박물관	1992년 3월	4(2)	4,802	1,453	185,510
	청주시	공립	전시관	청주백제유물전시관	2001년 11월	6(1)	1,186	359	37,319
	충주시	공립	박물관	충주박물관	1986년 11월	12(1)	2,376	719	109,792
	충주시	공립	박물관	충주전사유적박물관	2005년 11월	3	1,689	511	250
	영동군	공립	박물관	난계국악박물관	2000년 9월	3(1)	762	231	7,552

	진천군	공립	박물관	진천 종박물관	2005년 9월	5(1)	2,858	865	24,112
	청원군	사립	박물관	한국잠사박물관	1995년 10월	2	1,310	396	14,000
	제천시	사립	박물관	지적자료관	2000년 7월	9	826	250	550
	음성군	사립	박물관	철 박물관	1999년 11월	9(3)	817	247	10,188
	청주시	대학	박물관	청주교육대학박물관		1	161	49	3,500
	청주시	대학	박물관	청주대박물관	1967년 11월	3(1)	1,440	436	5,116
	청주시	대학	박물관	충북대박물관	1970년 9월	7(2)	1,713	518	7,853
	청주시	대학	박물관	서원대 한국교육자료박물관	1994년 11월	3	420	127	4,500
	청원군	대학	박물관	충청대박물관	1991년 3월	6(1)	1,260	381	122
	청원군	대학	박물관	한국교원대박물관	1987년 4월	4(1)	1,323	400	4,285
	청원군	대학	박물관	공군사관학교박물관	1979년 3월	8	4,093	1,238	48,048
	충주시	대학	박물관	충주대학교박물관	1980년 4월	3(1)	314	95	350
	충주시	사립	박물관	술박물관 리퀴리움	2005년 5월	6(1)	1,011	306	13,047
	청주시	사립	박물관	청주웅기박물관	2003년 3월	2(1)	387	117	350
충남	부여군	국립	박물관	국립 부여박물관	1993년 8월	30(10)	8,419	2,547	424,000
	금산군	국립	기념관	칠백의총기념관	1976년 9월	21	438	132	110,000
	아산시	국립	전시관	이충무공유물전시관	1969년 4월	56	568	172	912,454
	공주시	국립	박물관	국립 공주박물관	1973년 10월	29(3)	11,204	3,389	534,477
	보령시	공립	박물관	보령석탄박물관	1995년 5월	5(1)	1,366	413	212,300
	태안군	공립	박물관	고남패총박물관	2002년 4월	3(1)	542	164	23,117
	예산군	공립	기념관	윤봉길의사기념관	2001년 12월	9	1,412	427	102,231
	천안시	사립	기념관	독립기념관	1987년 8월	134(4)	39,661	11,997	1,043,639
	천안시	사립	박물관	복권박물관	1997년 3월	1	350	106	300
	예산군	사립	박물관	한국고건축박물관	1998년 10월	8	3,016	912	150,000
	예산군	사립	박물관	수덕사 근역정보관	2000년 4월	3(1)	870	263	160,000
	연기군	사립	박물관	연기향토사료관	1996년 8월	3	384	116	10,200
	금산군	사립	박물관	태영민속박물관	2000년 10월	4	279	84	3,150
	아산시	사립	박물관	온양민속박물관	1978년 10월	11(1)	10,155	3,072	251,510
	공주시	사립	박물관	공주민속극박물관	1996년 10월	4	534	162	14,136
	공주시	사립	박물관	웅진초등교육박물관	2001년 11월	5(1)	392	119	15,000
	논산시	대학	박물관	건양대박물관	1996년 4월	2	310	94	800
	아산시	대학	박물관	호서대박물관	1995년 3월	2	333	101	1,200
	천안시	공립	박물관	우정박물관	1985년 5월	5	1,146	347	28,587
	공주시	대학	박물관	공주교육대박물관	1975년 5월		182	55	

■ 시립박물관 건립방향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

	공주시	대학	박물관	공주대 부속박물관	1964년 8월	7(1)	866	262	5,568
	공주시	사립	박물관	계룡산 자연사박물관	2004년 9월	23(1)	10,756	3,254	43,000
	연기군	사립	박물관	교과서박물관	2003년 9월	4(1)	1,967	595	11,471
	당진군	공립	박물관	합덕수리민속박물관	2005년 10월	5(1)	448	136	
전북	전주시	국립	박물관	국립 전주박물관	1990년 10월	31	13,164	3,982	381,006
	익산시	공립	박물관	미륵사지유물전시관	1997년 5월	22	25,576	7,737	323,224
	익산시	공립	박물관	익산시 보석박물관	2002년 5월	15(2)	7,151	2,163	157,575
	전주시	공립	박물관	전주역사박물관	2002년 5월	9	2,242	678	43,920
	고창군	공립	박물관	고창관소리박물관	2001년 6월	4(2)	703	213	12,488
	전주시	사립	박물관	팬아시아종이박물관	1997년 10월	6(2)	2,222	672	72,603
	익산시	사립	박물관	원불교 역사박물관	1979년 3월	6(3)	1,972	597	30,000
	김제시	사립	박물관	동진수리민속박물관	1981년 7월	2	504	152	210,251
	전주시	대학	박물관	전주교육대박물관	1974년 7월	2	92	28	500
	전주시	대학	박물관	전북대 부속박물관	1961년 5월	5(1)	1,630	493	27,364
	전주시	대학	박물관	전주대박물관	1985년 2월	7(2)	1,843	558	31,082
	군산시	대학	박물관	군산대박물관	1984년 5월	4(2)	1,295	392	5,000
	익산시	대학	박물관	원광대박물관	1968년 1월	4(3)	5,723	1,731	33,914
	완주군	대학	박물관	우석대박물관	1983년 4월	2	328	99	30
	남원시	공립	박물관	남원향토박물관	2004년 5월	3(1)	490	148	170,000
	김제시	공립	박물관	벽골제수리민속유물전시관	1998년 4월	18(1)	2,287	692	123,352
	김제시	공립	박물관	아리랑문학관	2003년 5월	3	431	130	46,336
전남	목포시	국립	전시관	국립 해양유물전시관	1994년 12월	51(3)	27,066	8,187	266,251
	나주시	공립	박물관	나주 배 박물관	1992년 4월	3	1,040	315	18,700
	곡성군	공립	전시관	조태일 시 문학기념관	2003년 9월	1	558	169	600
	구례군	공립	기념관	동편제기념관	2001년 11월		44	13	2,000
	영암군	공립	박물관	영산호관광농업박물관	1993년 9월	18(2)	2,733	827	166,448
	순천시	사립	박물관	송광사 정보박물관	1997년 10월	3	440	133	109,600
	순천시	사립	박물관	선암사 정보박물관	2001년 3월	3	236	71	2,200
	보성군	사립	박물관	대원사 티벳박물관	2001년 7월	4	721	218	60,000
	영암군	사립	박물관	도갑사 정보박물관	2002년 10월	1	443	134	7,200
	순천시	대학	박물관	순천대박물관	1991년 3월	3	491	149	950
	무안군	대학	박물관	목포대박물관	1982년 3월	13(1)	2,110	638	15,000
경북	포항시	국립	박물관	국립 등대박물관	1985년 2월	6(1)	18,463	5,585	366,531
	경주시	국립	박물관	국립 경주박물관	1975년 7월	60(12)	18,940	5,729	1,584,608

	포항시	공립	박물관	영일민속박물관	1983년 10월	2	394	119	21,036
	문경시	공립	박물관	문경새재박물관	1997년 4월	5(1)	1,058	320	806
	문경시	공립	박물관	문경석탄박물관	1999년 5월	6(1)	9,775	2,957	305,507
	안동시	공립	박물관	안동시립민속박물관	1992년 6월	23(1)	2,289	692	131,469
	고령군	공립	박물관	대가야박물관	2005년 4월	14(3)	5,021	1,519	278,398
	청송군	공립	박물관	청송민속박물관	1999년 6월	2	517	156	5,855
	울릉군	공립	박물관	독도박물관	1997년 8월	11(2)	721	218	101,862
	안동시	사립	박물관	안동소주박물관	1996년 7월	2	469	142	30,020
	안동시	사립	박물관	하회동 탈 박물관	1995년 8월	5	1,254	379	150,000
	김천시	사립	박물관	직지 정보박물관	1995년 10월	6	1,283	388	8,706
	영덕군	사립	박물관	경보화석박물관	1996년 6월	7	1,148	347	142,844
	구미시	사립	문화관	금오민속문화관	2003년 5월	7	468	142	12,760
	경산시	대학	박물관	대구대박물관	1985년 5월	9(2)	1,754	531	25,544
	경산시	대학	박물관	영남대박물관	1968년 5월	6(2)	4,076	1,233	78,862
	경산시	대학	박물관	대구한의대박물관	1995년 9월	5(1)	607	184	160
	경산시	대학	박물관	대구가톨릭대박물관	1977년 5월	5(1)	2,843	860	6,600
	안동시	대학	박물관	안동대박물관	1979년 3월	9(4)	579	175	23,164
	칠곡군	대학	박물관	경북과학대박물관	1996년 3월	6	2,732	826	32,000
	문경시	공립	문화관	문경유교문화관	2004년 5월	1	732	221	200,000
	문경시	공립	전시관	문도자기전시관	2002년 6월	5	949	287	300,000
	문경시	공립	기념관	운강 이강기념관	2002년 4월	2	209	63	15,366
	경주시	대학	박물관	위덕대박물관	1999년 9월	4(1)	320	97	3,000
	경주시	대학	박물관	동국대 경주캠퍼스박물관	1983년 4월	5(3)	463	140	4,500
	경주시	대학	박물관	경주대박물관	1992년 8년	16(2)	720	218	1,200
	영주시	대학	박물관	동양대박물관	1996년 11월	6	172	52	
	영주시	공립	박물관	소수박물관	2004년 9월	16	1,540	466	534,559
	상주시	대학	박물관	상주대박물관	1988년 3월	1	113	34	300
	봉화군	공립	박물관	청량산박물관	2004년 6월	7(1)	672	203	29,009
	포항시	사립	박물관	포스코역사박물관	2003년 7월	11(1)	1,679	508	100,000
	구미시	공립	민속관	구미시립민속관	1994년 2월	2	398	120	30,606
경남	진주시	국립	박물관	국립 진주박물관	1984년 11월	43(5)	3,209	971	290,389
	진주시	국립	자료관	남부 산림자료관	1991년 6월	2	1,051	318	
	진해시	국립	박물관	해군사관학교 박물관	1976년 1월	7(1)	2,116	640	170,000
	김해시	국립	박물관	국립 김해박물관	1998년 7월	27(7)	9,636	2,915	228,564

■ 시립박물관 건립방향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

	김해시	공립	박물관	대성동고분박물관	2003년 8월	11(2)	2,167	656	4,136,472
	밀양시	공립	박물관	밀양시립박물관	1974년 4월	5(1)	776	235	21,695
	의령군	공립	박물관	의령박물관	1993년 4월	3	536	162	15,789
	함안군	공립	박물관	함안박물관	2003년 10월	8(3)	1,781	539	24,920
	창녕군	공립	박물관	창녕박물관	1996년 3월	3(2)	2,215	670	28,876
	남해군	공립	역사관	남해향토역사관	2000년 10월	2	536	162	6,816
	거창군	공립	박물관	거창박물관	1988년 5월	5(1)	1,233	373	21,003
	마산시	공립	박물관	마산시립박물관	2001년 9월	7(1)	1,572	476	35,400
	사천시	사립	박물관	항공우주박물관	2002년 8월	9(1)	746	226	342,060
	밀양시	사립	박물관	미리별민속박물관	1998년 5월	5	657	199	13,300
	밀양시	사립	박물관	표충사 호국박물관	2002년 11월	6(2)	290	88	104,000
	거제시	사립	박물관	거제박물관	1991년 12월	4	1,007	305	7,826
	고성군	공립	박물관	고성공룡박물관	2005년 11월	12(1)	1,599	484	442,602
	함천군	공립	박물관	함천박물관	2004년 12월	8(2)	1,091	330	27,346
	거제시	사립	자료관	거제민속자료관	2000년 5월	2	501	152	68,700
	양산시	사립	박물관	통도사정보박물관	1987년 10월	24(6)	2,005	607	100,000
	고성군	사립	박물관	갈촌 탈 박물관	1996년 9월	2	288	87	9,280
	남해군	사립	박물관	아천문화관	2000년 9월	2	493	149	3,000
	함천군	사립	박물관	해인사정보박물관	2002년 7월	10(1)	1,483	449	31,512
	창원시	대학	박물관	창원대박물관	1981년 3월	3(2)	684	207	27,658
	마산시	대학	박물관	경남대박물관	1976년 11월	8(6)	738	223	2,044
	진주시	대학	박물관	경상대 부속박물관	1984년 7월	9(1)	1,028	311	4,012
제주	제주시	공립	박물관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1984년 5월	28(4)	5,947	1,799	837,649
	제주시	공립	박물관	제주도교육박물관	1995년 4월	15(2)	1,967	595	34,529
	제주시	대학	박물관	제주대박물관	1967년 3월	3(1)	1,223	370	500
	제주시	사립	박물관	제주민속박물관	1964년 6월	1	448	136	15,000
	서귀포	공립	박물관	감귤박물관	2005년 2월		3,166	958	59,934
	서귀포	사립	자료관	서귀포이승만자료관	2001년 1월	3(1)	162	49	210,302
	서귀포	사립	박물관	아프리카박물관	2005년 4월	13(1)	914	276	157,497
	서귀포	사립	박물관	소리섬박물관	2004년 9월	1(1)	3,341	1,011	150,000
	서귀포	사립	전시관	곰완구전시관	2001년 4월	23(1)	1,030	312	437,115
	북제주	사립	박물관	평화박물관	2004년 2월	5	800	242	108,740



	남제주	사립	박물관	신영제주영화박물관	1999년 6월	26(1)	2,792	845	160,000
	남제주	사립	박물관	제주민속촌박물관	1995년 4월	33	5,362	1,622	428,481
	남제주	사립	전시관	설록차전시관	2001년 9월	9(1)	439	133	450,000

\*원 내용에서 필요부분 만 발췌한 내용임

\*본문 내용 중 규모부분에서 일부 실제와 많은 차이를 보이는 시설에 대해서는 수정을 가하였음.